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009년 12월 Vol.188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모교 '법인화' 2011년 완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입법 예고 '민교협·총학생회' 반발로 진통 클 듯

모교의 '법인화'를 위한 발걸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12월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은 우선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처럼 '이사회 체제'로 정부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구가 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장이 법인화 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해 실무를 총괄, 초대 이사장이 되고 감사 선임권을 가지며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는 총장·부총장 2인, 교과부 차관·기획재정부 차관·평의원회 추천자 1인, 기



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인사 7~15인으로 이중, 3분의 1은 외부 인사로 구성될 계획이다. 총장 선출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이 법안은 정부 혹은 지자체로 하여금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



대에 무상 양여토록 했다. 또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법인화 후에도 정부는 서울대에 인건비·시설비·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 지급하며 지급 규모는 매년 재산정 된다.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의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장이 4년 단위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 공표한다. 교과부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 공표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토록 했다. 교직원도 법인화 이후 공무원에서 법인 교직원으로 바뀌는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5년 내 정부 다른 조직, 또는 지자체로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지난 10월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마치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모교 법인화는 지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자율권 확보와 획기적 재정확충을 통한 교육 연구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내외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현 정부들이 '대학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화 추진이 본격화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장무 총장(사진 왼쪽)은 "2011년까지 법인화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사진 오른쪽)는 "서울대 법인화를 계기로 나머지 국립대의 법인화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에 '국·공유재산 및 물

품의 무상 양여,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재정 지원 등' 특혜를 약속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내 대학은 3백55곳으로 이중 국립대는 44곳 정도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안팎에서 반대운동이 만만치 않다. 우선 모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들은 공개토론회를 가졌다.그뒤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을 시장 논리에 맡기며 등록금이 오르고 기초학문을 더욱 도외시하게 되는 등 공공교육 기능이 약화돼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교협은 재정확충에 대해 "법인화는 대학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이며 재정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지 않고도 열악한 재정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학생회에서도 법인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등록금 상승과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며,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가 비민주화된다는 등이 반대 이유다.

모교 총학생회는 지난 9월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인화 찬반 총투표'를 실시해 80%가 반대표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본부가 법인화를 강행할 경우 총학생회는 동맹휴학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사 4~5면>

PSRST STD
NON-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이슈특집·모교법인화

<이장무 총장>세계적 국립·주립대들 성공적 수행중... 4면
<안병만 장관>국립대 자율성을 위한 세계적 추세 5면

09년 결산 임원. 편집 회의 평의원의 준비, 의원 소통 증진키로

미주 동창회 (회장 송순영) 임원회는 2010년초부터 19차 평의원회를 위한 준비와 홍보를 시작하기로 했다. 12월 10일 오후 4시부터 박 숙 재무국장 자택에서 열린 09년 마지막 임원회는 지난 7월초에 10대 회장단이 시카고에서 출범한 이후의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2010년도 1/4 분기의 사업계획들을 토의했다.

이날 임원회에 앞서 열린 동창회보 편집위원회는 회보 발행을 시카고에서 시작한 후 속히 정착이 이뤄지고 각 지부회의와

는 등 회원들의 입력을 더 추가하여 동문간의 소통 미디어로서 회보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토의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는 지난 8월에 회비와 기금 협조 서신 약 6천 5백매를 미주 동문들에게 발송한 이후 12월 10일까지 약 750명의 동문들이 호응, 매달 회보를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의 회비 협조는 12%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부회의로부터 지부 분담금 납부와 회비 협조가 저조한 점(12월 현재 2개



미주 동창회 2009년의 마지막 임원 및 편집회의

전 미주 동창들간의 유대감을 이어나가는데 차질이 없었단다. 회보 편집위원회는 신년 첫 분기의 회보 특집 이슈를

지부 회의만 남부)이 지적돼 신년 초에 분담금과 회비 협조 서신을 지부 회장단과 약 5천명 동문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4교수장학기금5만불 기증 김기봉.신정은 동문 부모들 기념으로

김기봉 동문(공대 63년 입학)과 신정은 동문(문리대 65년 입학) 부부가 모교에 1억원 규모의 '4인 교수 장학금' (Four Professors' Scholarship)을 기증하기로 하고 그 중 5만 달러를 미주발전기금에 전달했다.

이들 부부 동문은 모교에 봉직하고 작고한 선친 교수들을 기념하는 장학기금을 기증하기로 하고 1억원이면 그 이자로 재학생 1명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모교 측의 계산에 따라 9만 달러를 2012년까지 기탁하기로 했는데 그 중 5만달러의 수표를 지난 11월 28일 서울대학교 발전 기금 미주 지부에 보낸 것이다.

이들 부부는 신정은 동문의 부친 신기범 교수가 봉직했던 사

대 영문과, 신정은 동문의 모친 김분옥 교수가 봉직했던 농대 농가정과, 그리고 김기봉 동문의 부친 김성철 교수가 봉직했던 문리대 사학과, 김 동문의 생존하시는 모친 이남덕 동문(경성제대 동문, 이대 국어국문과 교수)의 연고가 있는 문리대 국어국문학과 등 4개 학과를 지정해, 그 학과의 재학생 중 학비가 어려운 학생 1명에게 매년 순번으로 1년 학비를 장학금으로 보조한다는 구상을 했다고 한다.

버지니아 주 비에나에 거주하는 김 동문은 미국방성에 근무하며, 아내 신정은 동문은 FDA (연방식약청)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봉급자 부부이지만 부부와 양측 부모님들이 대를 이어 얹힌 모교와의 인연을 생각하며 후배들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한다.

미결의 09년과 코펜하겐 회의

주필 이윤모 (농 57입)

마른 모래알들이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 나가듯이 한 해 365 일들이 모두 새어 나갔다. 2009년은 많은 과제들을 완결하지 못한 채 마감하는 한 해이다. 문명사회에 대한 테러 위협을 제거한다는 아프가니스탄 8년 전쟁을 미군 3만여 명 중과와 18개월 시한의 '막힌 종결'로 또 한 해를 넘긴다. 자본주의 이념들의 근본적인 실패를 드러낸 세계적 경제위기는 추락의 바닥을 쳤다고들 하지만 재상승의 기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채 2009년을 마감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협상에도 '6자'의 초점이 흩어진 채 북한의 화폐개혁이 돌출했고, 심지어 한국의 '세종시'라는 개발 타성의 이권을 둘러싼 다툼도 미해결로 2009년을 마감하게 된다.

"오바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며 지난 선거 때에 마치 메시아의 오리클인 양 희망을 걸었던 미국 사람들의 다수가 1년 만에 "미사여구가 희망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를 지면서 경제에 보약을 먹여도 취업은 개선되지 않고, 전 국민 의료보험 입법화도 2009년말에 터질이를 하고 있다. 오바마는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도덕성 없는 편'을 위해 우방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나악한 배짱'도 전시하여 냉전 종식후 견지해 온 유일한 슈퍼 파워 미국의 위상도 손상케 했다.

미해결, 미완성은 단지 "신이나 운명이 돕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는다. 행위자들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

들을 정밀하게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수단과 방법(Ways of doing things)은 문화(culture)가 처방(prescribe)한다. 어떤 문화는 정확한 처방을 제시하여 과제의 완성을 가능케 하지만 어떤 문화에는 과제 완성의 수단이나 방법이 결핍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왜곡한다. 또한 문화의 정확한 처방이 있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착오를 일으키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미국을 진탕에 빠트린 2개의 중동 전쟁은 민주주의 이식, 테러로부터의 문명사회 방어, 유대이즘 종교적 잔재를 회교도들로부터 지키려는 '홀리워' 그 어느 것의 순수형이 아니다. 자원을 독점하려는 이권집단들이 '탐욕' (desire and greed)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매핑한 잡탕일 것이다. 탐욕은 생물의 개체 존속을 위한 요구(needs)를 우선적으로 과장 매핑하여 그 투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마이다스의 황금처럼 찬란하게 부패시킨다.

세계 유일의 슈퍼 파워'와 '모럴 리더'를 자처하던 미국의 위선의 가면이 벗겨졌고 외국인들의 돌팔매와 조롱이 문턱에 다가온 것을 '홈 랜들 시큐리티'로 막을 수 있을까?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성공의 환상에서 탐욕으로 전락한데 기인한 문제를 미국은 아직도 "자본주의가 전능하다"는 망상에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적 장치"라는 착각에서 대처하려고 한다. 그러한 착각은 '탐욕에의 탐닉' (indulgence to greed)을 정당화하는 신앙을 제공한다. 그 전도사들은 "It is economy, stupid"라면서 탐욕의 목표 추구를 정당화하는 문화를 복음화 한다. 2009년에 미해결로 남기는 숙제

들은 탐욕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고 그 탐욕의 수단들을 회복하는데 있지 않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아직 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다. 그 답변은 "It's sustainability, stupid"로 시작된다.

12월의 코펜하겐 컨퍼런스가 '숨막히는 문명'에 출구를 줄 수 있을까? 지구 생태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온난화 문제는 단적으로 대기 온도 섭씨 2(화씨 3.6도) 차이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 온도 차이는 빙산의 해체, 기후의 난동, 질병의 만연, 식량의 흉작, 국가들의 전쟁 등의 변수가 된다. 이 '불편한 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권집단들의 정치적 저항이 협동으로 바뀔 수 있을까?

코펜하겐 회의는 환경의 위기가 선진국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도덕적 도전을 수궁하는데서 시작한다. 인류 존속을 위협하는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모델 크레딧'을 '통화'로 흥정하며 저개발 국가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협상들로 이 컨퍼런스는 발전될 것을 비전을 삼는다. 자원을 약탈하며 '적자생존' (適者生存)의 무제한 경쟁을 가치로 하는 문명의 단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 위기에서 급속히 탈출하는 묘안은 없을 것이다. 아직도 경기(景氣가 아닌 競機, 경쟁 기제)의 회복을 기대한다면 이 문명 위기의 교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고 공유하며 공동 파멸을 피하자는 '협동과 공조의 문명'의 서막을 코펜하겐에서 세계의 주요 '스테이 홀더' 국가의 리더들이 어떻게 인지했는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의미를 세계의 일반 찌터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공조하기까지 어느 만큼 시간이 걸리지도 의문이다.

김기봉 동문은 회보에 사진 게재하는 것을 사양하면서 단지 이런 사연이 알려져 모교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사 보도를 양해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김 동문 부부는

앞으로 4만 달러를 추가로 기탁할 예정이다.

미주 동문 인명록 1천부 배포 기금 위해 1천5백부 더 판매 필요

12년만에 새로 발간된 2009년 서울대 미주 동문 인명록(본보 10월호 보도)은 총 발행부수 2천5백부 중에 약 1천부가 동문들에게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인명록 발간과 보급을 주관하고 있는 뉴욕

의 이전구 10대 회장에 따르면 인명록 약 1천5백부가 아직 남아 동문들의 추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2009년 인명록은 총 852면의 양장 제본으로 미주 동창회 소개편,

동문 인명편, 직업편, 색인편, 광고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7천 605명의 동문 이름이 수록된

12월호의 주요 기사

- 3. 북한의 교육지책 통화개혁
- 4-5. 서울대 법인화 계획
- 6.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 포용통일
- 7. 국부를 보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
- 8. 미 군정 단독정부 수립론에 대한 이견
- 9. 수필로 풀어 쓴 신경 유전학

- 11. 마추피추 관광지(2)
- 13. 팝송이야기 <3>
- 14. 인명록 광고
- 15-18. 지역 동창회 소식
- 19. 고국 동문동정
- 20-22. 동창회비 납부 명목
- 23-29. 동문 업소목
- 30. 동창회 조직표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고병철(법)
주필: 이윤모 (농)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남채홍(NY) 백 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창광(A) 임승래(SF) 장석정(Ch) 정홍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 고병철(법)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편집장: 이기준

SNUUSA (발전기금위원회)
131 West 35th St., (New York Golf Build.), New York, NY 10001; 전화 (917) 514-1939, (917) 494-0223.
캐나다 동문들은 온타리오 동창회 이승찬 회장(전화 647-346-2405)에게 문의하면 된다.

특집

북한 화폐개혁

“교육지책 적 통화개혁, 향후 귀추에 이목집중”

북한이 최근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 배경을 둘러싸고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온갖 비평과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다. 편집실에서는 북한 화폐개혁의 자세한 내용과 세계의 비평 등을 종합해보았다.

북한이 지난 1992년 이후 17년 만인 2009년 11월 전격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북한은 이번에 화폐개혁을 통해 100대 1로 화폐가치를 절상시키면서 구(舊)화폐 사용을 금지하고 신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화폐개혁의 동기를 둘러싸고 인플레이션과 중산층 경제, 3대 세습을 위한 체제 수호 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급등하는 물가를 잡고 경제운용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임금과 생활 필수품 가격을 현 시장의 실질경제수준으로 인상해준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후 오히려 물가가 더욱 급등하는 인플레이

션 현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득이 교육지책적 화폐개혁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신보는 '이번 조치는 2002년 7월1일 당시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단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최근 급증하는 사(私)경제를 막고 중산층과 자본주의 사상적 유입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 다른 공산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소련·체코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체제가 바뀐 것이 증명하고 있다.

체제를 바꾸지 못한 북한에서는 1990년대 들어 더욱 위기에 처해 국가 경제가 마비, 배급까지 중단되자 주민들이 장마당과 암시장을 통해 연명하기 시작했다. 국영기업체까지 암시장 거래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자, 하는 수 없이 북한 정부는 장마당 등 사경제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7.1조치는 이래서 나오게 됐다.

장마당 등 사경제와 암시장이 번창함에 따라 공장·기업체 근무 기강상태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사경제로 버는 수입이 공장 임금의 몇 배나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2007년 10월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장사를 허용하는 통제 조치를 택했으나 이도 안돼 올 7월에는 대표적인 평성시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화폐개혁이라는 극약처방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경제로 벌어들인 돈을 숨겨둔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이론지 '경제

연구' 3호에 “화폐의 우상화는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고 쓰여진 것으로도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은 장마당 등을 통해 주민은 물론 노동당 간부층에서도 ‘화폐 숭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3대 세습을 앞두고 체제유지에 방해와 위협이 되는 신흥 중산층과 자본주의의 유입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바로 신권 교환 한도액을 규정한 것이다.

제일조선인 총연합(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가구 당 구권 10만 원을 신권 1천원으로 바꿔준 뒤 가지고 있는 나머지 구권은 모두 은행에 예치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가구당 10만원까지만 바꿔주기로 했다가 주변 반발이 커지자 나중에 15만원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왼쪽 하단 그림 참조).

북한은 이로써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물가를 잡는 한편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집에 보관해온 중산층 주민들의 금고를 아예 털어버리겠다는 뜻이다. 북한에서는 일단 정부 은행에 예치된 돈은 주민 개인이 임의대로 인출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가구당 가족 수는 현재 평균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구당 월 평균 생활비는 4만~5만원 정도나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3천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장마당 등에서 개인 장사로 버는 돈은 개인당 월 평균 1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장마당을 비롯한 암시장 등에서 이처럼 돈을 벌어들인 중산층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가 이들 대부분은 교환 한도액 1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화폐개혁은 중산층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북한 정부가 모조리 회수해버리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또 주민과 외국인의 달러 등 외화 사용을 막는 외환관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시장 등에서 달러화의 유통이 경제위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번 조치는 김정일 부자 3대 세습과 연관짓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는 두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새 화폐 공개

북한이 화폐개혁하면서 발행한 새 지폐가 공개됐다.

새 지폐는 ▶5000원권 ▶2000원권 ▶1000원권 ▶500원권 ▶2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등 9종이다.

기존 지폐 9종 중 1원권이 없어지고 2000원권이 새로

생겼다. 최고액권인 5000원권 앞면에는 김일성 초상, 뒷면에는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고향집이 그려져 있다.

새로 나온 2000원권은 앞면에는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선전하는 백두산 귀틀집과 정일봉이 나오고, 뒷면에는 백두산 천지가 그려져 있다.

동전은 기존의 ▶1원 ▶50전 ▶10전 ▶5전 ▶1전을 그대로 쓴다.

가구당 10만원까지는



10원

10만원 넘는 부분은



1원

처음엔 10만원 한도 교환 → 15만원 한도 교환 → 10만원 넘는 부분 1000:1 교환 자료: 데일리NK

3남 김정온에 대한 권력 세습에 방해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암시장 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김 위원장이 3남에게 보다 강력한 ‘경제권력’을 세습시켜주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화폐개혁에 따라 김 위원장이 군과 당 등 권력기관을 통솔하는 ‘수령경제’의 비중이 훨씬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위층도 수령의 의중에 따라 은행 예금 인출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수령경제’는 북한 화폐가 아니라 달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위층의 이들은 화폐개혁 전 이미 제공된 정보로 달러 환전 등 조치를 취했을 뿐더러 중산층 정도에 따라 종종 김 위원장으로부터 달러로 그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앞으로 그 전망이 매우 흥미진진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이번 조치로 크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다.

또한 화폐개혁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등 물가를 잡지 못할 경우의 또 다른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1990년대부터에 계속 누적돼 온 생산성 감소로 경제회복 희망이 불투명해 가장 불안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지난 1979년 화폐개혁 이후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아 결국 2년 뒤인 1989년 가격의 완전자유화를 택했던 것처럼 북한도 이의 모방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설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의 독특한 공산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화폐개혁 향후 북한의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 화폐개혁일지

- ▶1차 개혁=1949년 소액지폐 5·20·50전 발행
- ▶2차 개혁=1958년 신·구 화폐 100대 1 교환
- ▶3차 개혁=1979년 신·구 화폐 1대 1 교환
- ▶4차 개혁=1992년 신·구 화폐 1대 1 교환(가구당 교환액수 제한)
- ▶5차 개혁=2009년 신·구 화폐 100대 1 교환(가구당 교환액수 제한)

이슈 특집

모교 법인화 계획 · 이장무 총장



모교의 '법인화' 추진은 이미 밝힌 대로 오래 전부터 시작돼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장무 총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모교의 '서울대 동창회보' 9월호와 11월호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인터뷰로 밝힌 바 있다.

본 동창회보는 이 내용을 간추려 전제한다.

-서울대가 국립대 중 가장 먼저 법인화를 추진중인데요.

“1946년 개교 이래 서울대는 지역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할 경쟁력 있는 교육·연구·행정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일류대학들과 경쟁에서 생존해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 나라 고등교육 체계와 정책, 대학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국립대 또는 주립대학들이 이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립대학 법인으로의 ‘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재 유치와 기초 및 중점 육성 학문에 대한 지원, 교육과 연구

의 국제화, 그리고 재정 확충 등과 같이 모교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들을 이 새로운 기반 위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

‘국립대학교’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 대학운영의 자율성·유연성 확보 초일류대학 도약의 발판이 될 것

에 걸맞는 학교 운영체제와 교수 및 직원 처우 개선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의 법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 ‘국립서울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변화하는 것이죠. 정부 지원하에, 우수한 인재가 저렴한 학비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립대가 정부 조직이라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변화와 개혁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수와 교직원인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대학을 크게 변화시켜 학문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독립적인 정부 지원의 특수 법인을 말합니다.”

-국내에 사례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법인화에 대해 잘못 알

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법인화가 되면 사립대처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대 법인은 어디까지나 국립대에 기초한 법인화입니다. 국립대로서의 정체성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기초 및 보호 학문 육성 등 국립대의 사회적 학문적 역할도 반드시 지속되고, 이런 책무를 지금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죠. 사립대에서 서울대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법인화가 되면 이전보다 자율권이 더 확보될 뿐 사립대처럼 인기있는 분야만 집중 육성하는 등의 자율성은 갖지 못합니다. 모교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기초학문을 비롯한 전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패서디나의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에서 열린 한태평양 지역 대학 연합 연례 총장회의에 참석해 LA시장 초청으로 당시 40여개 유명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LA시장이 짧지만 인상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본인은 히스패닉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희망도 없이 자랐지만 UCLA에서 저렴한 학비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법인화를 이끈 도쿄대와 비교한다면?

“도쿄대와는 다른 독자적인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합니다. 도쿄대의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내부 구성원으로 돼 있는 폐쇄적인 시스템인 데 비해 모교 이사회는 반 이상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개방형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으로 이뤄진다면 외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요.

“법인화 논의는 오래 전인 1995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2004년 국회와 정부의 법인화 의지 천명 이후 학내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2005년 모교 법인화 태스크포스팀 연구보고서와 교수협의회 법인화 토론회의 상세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06년 7월에도 ‘대학의 운영체제 개선 연구’라는 제목으로 법인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죠. 정권 교체 후엔 정부에서 계속 전체 국립대학의 동시 법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모교는 모교 특성에 맞는 독자적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법인화란?

“지난 해 8월 독자적 법인화 추진 희망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사회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70여 명에 이르는 서울대 구성원이 참여하는 법인화 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학원장 간담회, 교직원 및 학생 설문조사, 학과장과 직원, 학생 대표 등과 주제별 그룹별 토론회와 동창회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학장회의 심의와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 설명회를 통해 구성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해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최근 마련한 법률안 초안의 주요 내용에 반영됐어요.”

-법인화의 가장 큰 목적은 자율성과 재정확충일 텐데요.

“자율성 확보와 더불어 재정확충은 대학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 서울대의 재정중 국고 비중은 4분의 1 수준인 26%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아주 미흡합니다. 일본 도쿄대와 교토대의 2007년도 국고 비중은 각각 50%와 45% 수준이며 싱가포르국립대는 48%에 이르고 있어요.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는 법인화 당시 재정을 확대한 바 있죠. 그러므로 우선 법인화하는 국립대부터 열악한 재정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법인화의 길을 선택하는 서울대가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국민과 정부가 큰 힘을 보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기해 양여 부동산의 활용, 장학기금 등 기부금의 확충, 연구비 증대, 수입사업 활성화,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확대 등으로 자체적인 재정확충 노력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법인화는 언제 가능할까요.

“금년말 법인화법이 통과돼 내년 1년여 동안 새로운 정관을 만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빠르면 2011년 새 학기 개강과 함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인화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자율적 대학행정과 재정확충에 위한 운영개선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새로운 학문영역이 개척되고 교육연구 체계도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해외 석학교수 채용, 능력과 성과에 따른 연봉지급, 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 등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한 변화와 개혁이 이뤄질 것입니다. 서울대의 법인화는 국립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국립대학 법인이 됨을 의미합니다. 법인화 이후에도 모든 경제적 재충의 우수한 인재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대학교육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게 하는 국립대학 법인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 공공성 등을 유지하는 것은 서울대의 변함없는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학의 발전은 일부 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변화를 향한 새로운 도전인 ‘서울대 법인화’는 모교가 초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특집

모교 법인화 계획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세계적 추세입니다”

-모교 법인화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어떤지요.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는 세계적 추세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과제로 생각합니다. 교과부는 서울대를 법인화해 이사회 체제를 도입하고 조직·인사·재무 등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 대학운영이 개방적이고 효율적 체제로 전환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해 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책임운영 체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인화는 서울대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종합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를 비롯,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인화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재정 부문입니다.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어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 지원은 줄지 않을 겁니다. 국립대의 법인화가 학문이 상업화되고 교육 연구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하며 등록금은 인상되고 기초학문은 고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은 현재 서울대가 보유·관리 중인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해 법인 설립의 기초자산이 되도록 하고 국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재정 지원과 더불어 수익사업의 허용, 개인재산 양여 또는 출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재정확보 수단을 다양화해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화 선도대학으로 육성 중인 울산과기대 지원과 운영이 궁금합니다.

“정부는 울산과학기술대가 국립대 법인화 선도대학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건비·운영비·교육인프라 구축비 등에 국고 예산으로 약 60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과기대는 다른 일반 국립대와 비교할 때 정원 조정 및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 인사 운영 등에서 많은 자율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100% 영어강의 및 해외 우수 교수초빙 등을 통해 개교 5개월의 짧은 기간에 이공계 특성

화 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모교 입학생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1년 6천명에서 현재 3천100명 정도로 급감했는데요.

“서울대의 경우 BK21 사업 등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학부보다 대학원 교육에 치중하기 위해 학부정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학부정원 증원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감축 기조, 국립대 역할,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6년간 양 제도를 통해 현행 연 1천명에서 연 2천200명 수준의 법조인이 배출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 입학정원의 증원은 법조인 공급 과잉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착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에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정부는 이미 ‘대입 3단계

7.6%로 구성돼 있어 초·중등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 분야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과학기술 예산의 경우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보다 24%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벨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뜨겁습니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 배출을 위해 교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과학기술의 목표가 노벨상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말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기초과학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고, 노벨상도 자연스럽게 받게 되겠죠. 수학·과학교육 특성화를 통해 기초과학 우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신진연구자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인 연구리더로 육성하는 전주기적 인재양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개척 연구 분야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1.5배 증액(16.6조)시키며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조세·금융 등 지원시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규

평가의 경우 작년에 전수평가를 처음 실시하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미비점을 보완해 무사히 치렀습니다.”

-앞으로 각오나 기대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은 그 어떤 분야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정책을 변경하기보다는 더욱 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추진해 가고자 했고, 이런 원칙적 대응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만 장관

▶1941년 충북 괴산 출생 ▶1960년 경기고 졸업 ▶1967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법학석사) 졸업 ▶1974년 미국 플로리다대 졸업(정치학 박사) ▶1975년 한국외국어대 교수 ▶1994년 한국외국어대 총장 ▶1995년 한국정치학회 교육위원장 ▶2005년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2006년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 ▶2008년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 지원 줄지 않을 것 학생 등록금 인상 등 사립대 전략 없어 국립대 법인 ‘울산과기대’ 100% 장학생

자율화 방안’을 수립해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점진적으로 주자는 방향으로 대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고교와 연계한 선진형 대입전형을 정착시킴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권 확대와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만 있고 과학기술은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과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교육과 과학기술이 몇 대 몇 정도로 배분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체 예산(안) 규모는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보다 0.1% 증액된 41조 2천41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비율은 교육이 92.4%, 과학기술이

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노벨과학상 수상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노벨상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이 있어 노벨상의 꿈도 그리 멀지않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과학기술 7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와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은 이번 정부에서 5년간 추진할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지난해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577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우선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신산업 창출, 기초 기반 융합기술 개발 등 7대 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며, 인재양성 기초원천연구 등 7대 시스템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제를 완화해갈 예정입니다. GDP 5% 연구개발 투자, 7대 기술 분야 중점투자, 7대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2012년까지 7대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직 수행 1년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취임 이후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확보를 위해 미래유망 파이오니어사업,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개인연구자에 대한 지원, 소규모 집단연구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 및 연구 강화를 위해 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한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비롯해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동특화전문대학원, 학연협력 연구센터를 세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업성취도

정책 논단



박 세 일 (법대 70년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편집자 주) 박세일 동문이 제기하는 한반도 통일론을 지난 호(1.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2. 실패의 원인과 결과 3. 새로운 위기와 두 가지 도전)에 이어 게재합니다.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해 북한을 끌어안고 통일을 향해 가는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의 성공에는 다음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통일 대강(統一大綱)’, 둘째 한반도 통일전략, 셋째 ‘동아시아 미래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에 이웃 4강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와 국민의 통일외지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정부와 여야, 국민이 함께 ‘통일대강’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국론을 통일해 나가야 한다. 통일대강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선진화 통일의 목표와 가치

‘선진화 통일’의 첫째 목표는 우리 민족이 변방으로부터 세계 중심으로 나와 성숙한 선진 국가를 만드는 데 있다. 분단과 갈등의 지속은 북한은 물론 남한의 선진화도 막고 있다. 분단의 고통과 비용을 이대로 두고 남북이 더 이상의 번영과 발전,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지키는 것도 어렵다.

둘째 목표는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의 영구 평화와 무한 번영에 앞장서 공헌하는 데 있다. 한반도 분단에서는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선진화 통일’의 첫째 가치는 ‘인간 해방’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자유 신장과 복리 증진에는 남북이 별개일 수 없다.

‘선진화 통일’은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반인권과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둘째 가치는 민족승리다. 우리 민족이 100년 전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 21세기에는 반드시 민족 승리를 이루자는 데 있다. 우리 민족이 조선조 말 근대국가의 건설에 실패하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역사를 갖게 된 이유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21세기 새로운 세계역사의 흐름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선진화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역사의 대세를 거부하고 반세계화, 반정보화, 반선진화 방향으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역사의 교훈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새로운 제도, 사상,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근대화 정상국가화

선진화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정상 국가화와 근대 국가화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상 국가화란 국제규범(예컨대, 핵포기, 국제간 약속준수 등)을 준수하고 국제평화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로 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 국가가 되려면 핵실험·위조지폐·마약·무기 판매 등으로 더 이상 불량국가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근대 국가화의 제 1단계는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고, 2단계는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산업화는 북한 동포들에게 ‘기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서 북한 사회에 올바른 통일세력인 선진화 통일세력을 육성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정일 이후 권력 구조의 3개 시나리오에 대비

첫째 순조로운 권력이동에 실패한 ‘혼란의 경우’다.

그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혼란을 정치·사회적 안정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인도적 재난방지를 위한 경제지원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혼란기에 남한이 북한을 안정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웃 4강들에게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긴급 구호증진의 원조를 위해 신속하고 막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남한이 주도할 능력이 있음을 특히 중국에게 확실히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번째 ‘부자세습’으로 안정적 권력승계가 이뤄지는 경우.

력 개입이고 2와 3의 경우 발생하지 않을 새로운 집권세력이 중국에 투항하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북한에는 중국의 변방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의 분단은 반 영구화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고구려 멸망후 한반도 안동도호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8년을 넘기지 못하고 당나라의 변방 정부가 한반도에서 축출됐다는 사실을 중국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요는 북한 동포들과 지도층 다수를 어떻게 선진화 통일세력으로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외세에 투항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남북 기본합의서(1992)대로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통일’의 길로 가도록 설득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이 바로 한반도 통일 전략의 핵심적 내용이 돼야 한다.

북한 개발 청사진 제시

“북한 체제 위기 관리 실패하면 중국이 투항하거나 중국 무력 개입 가능성 커져 통일과 동아시아 번영 불가능해질 수도 ”

로부터 자유’, 민주화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국민의지와 북한 ‘동포 마음’ 얻는 통일 전략 세워야

우리나라 지도자와 국민 모두 민족의 선진화 통일을 위해 분단의 안주, 통일의 회피가 민족과 북한 동포들에게 역사의 죄인임을 밝혀야 한다. 또 세계사의 흐름과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역행함을 밝혀야 한다.

통일문제를 당파나 정파적 이해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통일정책은 전문가 의견수렴, 여야 토론과 합의, 국민 동의와 지지 속에서 수립돼야 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통일대강을 국민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동포사랑과 나라사랑의 마음, 통일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

선진화 통일론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국론통일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동포들이 이에 공감, 동의토록 적극 설득하는 일이다. 북한 동포가 우리를 원하고 우리 선진화 통일론이 그들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픈 과거는 묻어두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 밝은 미래로 나아감으로써 선진화 통일의 대업을 이루자는

그러나 새로 등장한 권력은 김정일의 강성대국 기존 노선을 바꾸기 어려워 정상국가화나 개혁개방의 길이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체제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급변한 체제 실패만 당분간 연기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남한은 (1)4강을 설득, 복을 개혁, 개방하도록 설득과 압력 강화방안 (2)대북한 동포에 개혁개방 설득과 압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제3의 세력’으로 비교적 안정된 권력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다.

그 경우 제3세력이 기존의 김정일 강성대국 노선을 바꿀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의 새로운 집권층이 ‘선진화 통일’을 향해 남한과 합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북의 체제안정과 점진적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 과정을 적극 도와야 한다.

이 3가지 시나리오는 지극히 가변적이다. 제2(부자세습)로 가다가 제1(혼란)로 갈 수도 있고 제3(제3세력)으로 가다 제1(혼란)로 갈 수도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제1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중국의 무

통일 후 북한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질서 있는 변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분권적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과정, 북한경제의 생산기반을 재구축하는 경제지원과 국내의 투자동원, 과거 남한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정책실수 반복에 대한 예방대책 등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통일의 비용 측면만 과도 홍보돼 통일을 부담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통일은 올바른 계획, 관리하면 한반도 경제의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과 남한 경제는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한에는 청소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청소년 인구비중이 커 한반도 경제의 급속한 노령화를 지연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많은 미개발 천연자원 부존량에 노동력은 전반적으로 근면 성실한 노동윤리를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만으로도 최소한 6-8% 정도 경제성장 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노동집약적 산업, 남한은 자본 내지 기술집약적 산업에 특화하면서 서로 새로운 내부 분업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한반

도 경제 전체로서 (1)내수시장 확대와 심화 (2)수출시장에서도 새로운 비교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산업부문에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본격적 산업화와 남한의 선진화 도약의 길이 함께 열릴 것이다.

정부 종합전략 추진체계

정부 내에 범부처적인 ‘종합전략추진체계’를 만들어 민관합동의 ‘선진화 통일기구’를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선진화 통일기구가 해야 할 사업은 (1)통일대강과 한반도 통일전략, 동아시아 미래구상 (2)4강에 대한 통일외교(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와 당위성 홍보) 강화, (3)통일에 대한 국론통일을 위한 대국민소통과 통일교육 강화 (4)북한 동포들을 포용하고 설득하는 각종 노력을 강화해 북에 선진화 통일세력을 지원하고 조직화해 가는 일 (5) 북한의 급변사태가 남북통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각종 통일전략 수립과 준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동아시아 미래구상 제시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문제다. 통일에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동아시아 미래구상’을 만들어 4강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없이 동북아에 번영과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역으로 분단의 지속이나 새로운 분단의 탄생은 분열과 전쟁 그리고 빈곤의 구조적 원인이 됨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미국의 주관심인 북핵문제도, 중국의 주관심인 중국변방의 안정 문제도 오로지 한반도 통일을 통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반도는 어떠한 패권에도 반대하는 반패권주의를 천명하고 장기적으로 평화 자주외교 지향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이웃 4강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1)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더불어 앞으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 비핵화 희망’을 만들어 비핵시대와 비핵국가를 확산시켜 나가자 (2) 통일 한반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킬 것, (3)통일 한반도는 동아시아에 다자간 평화안보체제의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의지 (4) 장기적으로 열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도 적극 지지하고 앞장서겠다는 원칙 등을 천명해야 한다.

< 10 페이지에 계속 >

한창섭 칼럼



한창섭 (문리대 57 입)

필자는 최근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현격한 차이점을 발견했다.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흠대하지만 중국인들은 공산 중국을 세운 모택동 주석을 정대하고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북경)의 천안문 광장에는 모택동의 대형

국부를 보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올대
폭군 모택동은 영원한 영웅으로 추앙

하고 있을까?

그들 '독재자', '부패한 자'라는 누명을 씌워 역사적 죄인으로 매도했던 자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지금도 매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자들은 첫째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는 빨갱이들과 두번째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한 김구 선생의 추종 세력, 세번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겠다는 정권욕에 사로잡힌 야당 세력이었고 네번

유민주주의를 심은 영웅이다. 전쟁 중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간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폐기하고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다.

필자는 지난 달 중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의 여러 곳을 약 1주일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속초에서 멀리 않은 휴전선 통일

해방됐을 당시부터 60년대까지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금 북한은 어떠한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로 반면 남한은 세계 경제 14~15위권에 있지 않은가. 만약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이 김정일의 북한에 마구 퍼주지만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더 커졌을 것이다.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필자는 한국의 좌파들이 대한민국 10만 원권 화폐에 초상화를 넣기로 결정했던 조선 독립에 큰 업적이 있는 김구 선생의 기념관을 찾아가 보았다.

기념관은 효창공원에 있었는데 2천300평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과 그 웅장하고 화려한 데 놀랐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나 제퍼슨 대통령의 기념관에 못지 않게 웅장하고 화려했다. 김대중 정권이 공사비만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지 가격을 포함하면 400억원이 넘는다는 설도 있다. 정부기관인 국가

령 이승만 박사의 대형 마로 항상 김구를 내세우고 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이를 보류시켰는데 언제 좌파들이 노무현 정권의 결정을 부활시킬 것인지 모른다. 좌파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중국의 관광지로 유명한 북경·서안·장가계·계림 그리고 상해 등을 10일간 방문하는 동안 5명의 조선족 안내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한결 같이 남한 즉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 중국에 사는 조선족의 위상이 말할 수 없이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족의 긍지를 갖게 됐다고 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는데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한족이 약 93%이고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이 중국 인구(공식적으로는 13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약 16억이라고 함)의 7% 인데 조선족은 약 80만 명으로 소수민족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조선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우가 많이 달라졌으며 소수민족 중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다른 안내원은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선족 안내원들은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니고 김일성-김정일 왕조”라고 칭하면서 좀 창피스럽다는 태도를 취했다.

사실 현재의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공산당 1당이 지배하는 공산 국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유가 상당히 많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문화혁명시 많은 박해를 받은 등소평으로 그가 1976년 권력을 잡은 후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실시해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난 10월 1일 중국 공산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서도 모택동보다는 등소평을 더 내

세웠다. 중국의 1인자가 된 등소평은 자신에게 박해를 가했고 자기 아들을 불구자로 만든 문화혁명의 주모자인 모택동에 대해 격하시키거나 폄훼조치를 하지 않고 그를 공산 중국의 국부로 모시는 아량을 베풀었다.

이것은 4.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한 이승만 박사에 대해 취한 4.19 이후 집권자들의 행적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국인들은 결국 그들이 현재 자유를 누리며 잘 살게 된 것이 누구의 덕택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

이 박사의 사저 '이화장'은 폐허처럼 방치
화진포 김일성 별장, 김대중 정부가 재건

초상화가 항상 걸려 있고 모든 화폐 즉 1위안에서부터 5·10·50위안, 그리고 100위안에 이르기까지 모택동의 사진이 들어 있지 않은 지폐는 없다. 또 모택동의 시신이 영구히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모택동 기념관이 있다. 그의 동상이 중국 각 지역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 생존시에 파고다 공원 내에 이 박사의 동상이 하나 있었으나 1960년 4.19 때 그 동상을 파괴한 이후 오직 그의 동상은 현재 이화장 안에 하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에 현재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동상이 약 3만개가 있다는 것과 정말 대조적이다.

모택동은 과연 중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그는 1949년 10월1일 중국에 공산 정권을 수립한 사람이다. 그는 마치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과 같다. 그러나 그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됐고 그의 대약진 정책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됐으며 특히 1966년부터 1976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소위 '문화혁명'으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됐다.

홍위병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이 수천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만도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문화혁명 기간에 소수민족들의 피해는 막대했다. 홍위병들은 조선어를 가리키는 조선족 학교를 폐쇄시켰고 조선족의 문화시설도 파괴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폭군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데 반면 한국에서는 1960년 3월15일 선거가 부정으로 실시됐다 하여 주로 학생들이 봉기한 가운데 데모 저지 기술의 미숙으로 180여 명이 목숨을 잃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한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우를

제로 좌파 언론인과 사이비 학자들이 바로 이런 무리들이다. 이들이 '의거'에 불과한 4.19를 '혁명'으로 미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부당하게 폄해하고 있다.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다시 실시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도가 아닌가.

필자는 작년 가을 서울을 방문했을 때 평생 처음으로 건국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찾아갔다. 필자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이화장 부근에서 대학을 다녔고 이화장이 이화동에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단 한번도 찾아가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화동에 가면 누구나 건국 대통령이 살던 집을 알 것으로 짐작하고 무작정 갔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화장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결국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찾았다.

이화장의 문은 잠겨 있었고 예 없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수위가 말해 간신히 그의 호의로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이화장이 과거에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마치 폐허화 되는 절간과 같이 보였다.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있었고 내외분이 기거하던 침실과 거실, 그리고 대한민국 첫 내각을 조각한 조각당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모두가 초라해 보였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1960년 그의 하야 때까지 이 박사의 활동을 담은 사진들이 벽에 누추하게 전시돼 있었다.

필자는 오늘의 이화장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한편 서글픔을 느꼈다. 한국인들은 정말 건망증이 심한 국민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에 그는 자

전망대를 방문했고,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화진포를 방문했다.

놀라운 것은 김대중 정부 때 많은 예산을 들여 김일성의 별장을 재건해 관광시설로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그 곳에는 김정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사저 이화장의 최근 모습

이 5세 때의 사진이 가장 중요한 유물이었다. 보수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정부는 이 박사의 별장도 재건해 전시장 등을 마련했다고 한다.

25년만에 한국의 지방을 둘러보니 마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다. 필자가 성장한 강원도 원주에도 가 보니 전혀 새로운 도시가 돼 있었고 신혼여행갔던 해운대에 가보니 이곳은 뉴욕의 맨허튼 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변모해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것 같았다.

바로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체제를 한국에 심은 사람은 누구인가.

1945년 36년간의 일제 하에서

보훈처가 소유하지만 김구선생 기념사업회가 관리하고 있다.

김구 선생은 1945년까지 평생을 조선 독립을 위해 노력한 분으로 상해 임시 정부의 주석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는 귀국 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으며 결국 김일성에 이용돼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된 1948년 5.10 선거를 방해한 인물이다. 따라서 누가 그의 행적을 변명한다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방해한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인물의 초상화를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제치고 화폐의 최고액인 10만원에 넣기로 결정한 좌파 정권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

이의 제기

‘미 군정과 단독정부 수립’ 기고문에 대한 이견

“역사 바로잡기 신중해야”



고영철(의대 49년 졸)

미주 동창회보 8월호와 10월호에 연재된 조봉완씨의 기고문을 읽고 그 당시 십대 소녀였을 그 분께서 당시의 혼탁한 사회에 있었던 민주세력과 공산세력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경험하지 않고, 많이 있었던 상반된 문헌 중 좌경문헌을 읽고 역사 왜곡의 오류를 범하였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역사가도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닌 주제에 나의 의견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과시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1945년부터 1949년 서울대 의대 재학 중 해방 직후 의대 기초의학 건물이 미공군에게 장탈 당하는 동안 수업불능 상태에 있었을 때 잠시 교향에 들어가 신의주 제일 공업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소련군의 황포·약탈·강간 등과 공산당의 무자비한 인권유린, 유산자 숙청과 소련군 총탄에 의해 23명이 사망한 ‘신의주 반공학생 의거’ 사건을 직접 체험한 나는 항상 정계의 동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 왔기에 선전적 역사 왜곡에 넘어 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먼저 여운형(呂運亨·사진)의 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민족주의였다는 조씨의 진술은 이승만 박사가 해방후 10월에 귀국했을 때 인공(人共)을 대표해 이 박사를 인사차 찾아간 사람들이 인공 부통령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서기장 이강국, 보안부장 최용달 네 사람이었는데 이들에 관해 잠깐 기록키로 한다.

인공을 주도한 여운형은 8.15 다음 날 휘문 중학교 교정에서 해방 후 첫 연설을 했다. 이때 청중의 한 사람이었던 나는 그의 능률한 제구와 웅변술에 감쪽 매료돼 그가 이북주둔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한반도 5년간 신탁통치 지지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의 지지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다. 당시 서울대학교가 공산당의 소굴이라는 세론의 근본 원인은 나와 같은 여운형 숭배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여운형에 대해 그의 둘째 딸 여연구가 자신의 저서 “김일

성 주석과 여운형”(2000년 평양에서 출간)에서 기술한 글을 인용한다.

“나의 아버지는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지향했다”(P 132).

그리고 그 책에 여운형이 1946년 세 번이나 김일성을 찾아간 기록이 나온다.

첫번째로 2월13일 서울에 나타나 2월15일 공산당과 하부집단 즉 인민당·노동조합·부인회·민주청년 동맹·학생동맹 등의 집합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을 조직했는데 이를 여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데 모든 힘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P 157).

그 방북 때 여운형은 김일성에게 딸 딸 여연구와 둘째 딸 여연구를 김일성이 맡아줄 것을 부탁해 두 딸은 여운형의 60세 생일(음력 4월24일) 후에 월북해 김일성의 집에서 살며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9월 말 제1차 소련유학생으로 선발돼 소련 톰스크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P 237). 두 딸을 김일성에게 부탁한 여운형을 ‘Nationalist than Communist’ 라고 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역사 왜곡이라고 본다.

여운형의 두번째 김일성 방북

작은 공산당만을 제외함으로 써 미국이 주도하는 우익에 쏠렸고 반동이 더 득세하게 됐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버지는 1946년 9월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뵈은 석상에서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이 과오에 대해 심각히 뉘우치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운형이 조직한 인민당에서 공산당으로 전입하는 자들이 속출하자 그는 11월 12일 사회노동당을 조직했지만 그는 좌우양면의 공격대상이 되자 “12월4일 좌우합작위 좌측 대표 여운형 자기비판문을 발표하고 —” 차라리 민중 앞에 사죄하고 이 증책에서 물러감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고백하였다” 라고 여연구는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께 거듭 심려만 끼쳐드린 아버지는 1946년도 다 저물어가는 추운 겨울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왔다” 로 돼 있다(세번째 방북).

인공 국무총리 허헌에 관한 기록은 1982년에서 1983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비화 미군정 3년’에 실려 있지만 단 한 구절을 인용해 그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제 23회 기사에 “이어 공산당의 박헌영은 허헌을 앞세워 남조선 노동당(약칭 남노당) 조직을 추진하면서 여운형을 제



민족주의자인가, 공산주의자인가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가 여운형

조선의 공산당 간부로서 혁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을 상대해서라도 생사의 투쟁을 서슴치 않겠다는 강철

희의에 참석해 김일성의 이용물로 끝나고 다음 해 암살의 희생물이 된 것은 정말 민족의 비운이었다.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소집됐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지지정당만 통일정부 수립에 참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련 대표 앞에서 이승만의 독립촉성위원회, 김구의 한국독립당, 김성수의 한국 민주당은 회의 참석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북에서 민족전열을 완전히 제거한 소련 측은 1947년 5월 21일 공동위원회에서 “They announced that any group that at any time had taken part in the actions of Anti-Trusteeship Committee could not be included in future political activity” (p 115, The War of Korea 1945 -1950 by Allen R. Millett) 라고 고집을부린다. 즉 우익 단체는 완전히 제거하고 공산당과 그 추종세력만의 정부를 인정코자 하는 술책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유일한 민족 자결의 길이었다.

조국 분단을 미 군정과 미 군정이 지지하는 극우분자의 책임으로 결론지은 것은 편견과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던, 소녀 시대 역사를 편견된 기록만에 의거한 까닭임을 이해하며 조국 역사 바로 잡기에 참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바다.

“여운형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 민족주의자, 미군정과 극우분자들로 한반도 분단”은 왜곡

은 9월 말인데 여운형의 인민당, 공산당의 박헌영, 신민당의 백남운과 3당 합당 운동을 이북의 3당 합당(공산당·조선민주당·청우당)에 따라 하고자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후였는데 이유는 박헌영이 인민당·신민당원 중 과거 민족주의에 속했던 자들을 숙청하라고 요구했으므로 여운형은 김일성에게 박헌영을 견제할 것을 부탁할 모양으로, 여연구는 “그래서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행길을 단행한 것”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p 178).

또 그녀는 계속하기를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들과 끝내 합의를 못 보고 김규식을 찾아 갔다.”

이로부터 여운형·김규식의 좌우합작 운동이 시작됐지만 공산당의 박헌영은 반대했으나 미 군정의 지지가 있어 여연구의 서술에 따르면 “우익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민당에서도 박헌영 등 16명이, 그리고 극우의 진영에서도 김약수·김병로 등 270명이 좌우합작운동에 나섰다. 결국 좌우합

거시켜 버린다(남조선 경찰의 공산당 체포작전으로 월북해 해주에서 조직됨).

다음은 인공 서기장 이강국인데 그는 건국준비위원회 조직 부장으로 인공 조직의 두뇌였다. 그가 박헌영이 북한에서 권력투쟁에서 패해 미국의 스파이로 몰려 총살당할 때 같이 총살당했다는 보도는 당시 모는 남한 신문에 실렸기에 그가 정통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은 다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성 제국대학 2 회 졸업생이며 독일유학을 한 재사로 이름이 나 있었다.

이강국과 동기생인 최용달(崔容達)에 관한 기사를 동아일보에 1974년 연재한 경성제대 제1회 출신 유진오(兪鎭午)박사의 ‘편편야화(片片夜話)’에서 인용코자 한다. 1974년 5월 7일 기사에 유진오 선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최 군은 틀림없이 내가 지나간 20년 동안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내왔지만 그는 이미 옛날의 그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해방

같은 결심이 서 있는 하나의 투사였다. 나의 눈 앞에는 피비린내 나는 민족의 참극이 선하게 보였다.”

1945년 10월 이승만 박사를 찾아간 인민공화국 간부 네 사람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뚜렷한데 좌측발간기 사란 읽어본 까닭에 저지른 오류로 보고 탓하지는 않겠다.

그는 결론으로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was the crucible of the divided Korea” 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은 인정하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목살하고 있다.

당시 소련은 자기 점령지역에서 공산당 정부 외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세계 공산화 정책을 폈는데 그 노선을 추종하는 북노당·남노당의 반민족행위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역사학 박사의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독일 패전 후 동 유럽에서 소련이 모든 민주세력을 말살하던 역사적 현실을 간파하지 못했던 김구 주석은 1948년 4월 김일성이 초대 한 애국가 통일

기고

수필로 풀어 쓴 '신경 유전학'



이원택 (의대 65 입)

부부싸움할 때 가끔 씨가 어떻느니, 밭이 어떨느니, 하는 말을 듣는다. 옛부터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란 말이 있듯이 거의 모든 문화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는 유전학을 속속들이 공부한 맹렬 여성들이 대법원에서 자식 이름을 '나리 김 박'이라는 등 괴물단지로 만들기도 한다.

예전에는 천자식을 알아보려던 발가락이 닳았나 살렸는데 요즘은 DNA검사를 해대니, 유전학을 너무 따져 여성 제위들에게 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유전학이 장족의 발전을 해서 동물 복제도 하지만 현대 유전학도 아직 어린애 걸음마 수준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

즉 유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츠하이머, 정신분열병, 고혈압 등에 작용하는 유전자가 3만개 정도 있다는데 아직 알려진 것은 몇 백 개에 불과하다. 또한 이 병의 유발 유전자가 있으면 발병억제 유전자도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갈 길이 요원한 것이다.

예로 정신분열병이나 알츠하이머 유발이나 억제 유전자를 확인하려면 수많은 유전자를 일일이, 마치 전기기구 tester로 +, - 를 대보듯 해야 하니 부지하세월이며 또한 단순한 기계고장이 아닌 인간의 질병 유무를 테스트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유전자(gene)란 무엇?

인체도 무기물과 유기물로 만들어졌는데, 유기물로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고 아미노산은 DNA가 모여 적어낸 것이며 DNA는 4종류 분자들이 서로 얽혀 길게 배열되다가 세포분열 때 독립해서 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끊어진다. 이같이 한 단위로 뭉쳐진 DNA를 유전자(gene)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DNA Chain은 수천개 핵산분해물질(nucleotide)이 용수철 같이 꼬여지면서 한없이 이어져 있는데 너무나 방대해 약 50분의 1 정도로 줄어놓은 것을 염색체(chromosome)라 하며, 이것을 모든 세포의 핵 안에 23개(22개의 성 염색체와 X 또는 Y의

성 염색체)씩 저장돼 있다가 핵분열이나 수정 시에 쪼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공장은 세포 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유전자가 직접 갈 수 없고 DNA를 복사한 전송사진을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를 돌연변이(mutation)라 한다. 이것이 난자나 정자에서 일어나면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진화설의 모체가 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 형성 DNA chain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경우는 약 1% 정도며 나머지 99%는 단백질 생산을 못하는 소위 junk DNA인데 이같은 불량 DNA도 그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아주 쓸데없는 DNA는 아니다.

이때 DNA가 토막토막 잘라졌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 배열이 완전히 바뀌어 원래의 DNA와 다른 RNA가 나오는데 이 때문에 한 개 전제물(precursor)에서 다른 두개 전달자(messenger), 즉 두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같은 유전자를 jumping

“발가락이 닳았나”와 DNA 검사 환경 영향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학적인가.

서양에서는 'gene' 이 oxygen, hydrogen 처럼 물질을 형성하는 모체 즉 구조적 단위로 강조된 감이 있고 동양에서는 '유전자' 또는 'generation' 에서 보듯 '계승과 번식'이라는 기능적 역할이 강조된 감이 있다.

분자생물학에서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은 서로 다른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순열조합을 유전자가 지시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단백질은, 정신화학에서 거론된 신경세포를 자극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 그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또한 그들을 파괴하는 효소(enzyme) 등이다. 생물의 육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격까지 형성한다.

예를 들면 같은 DNA 형판(tem-

플릿 정신분열병의 경우 양쪽 부모 모두 환자거나 일란성 쌍둥이가 정신분열병이 있었을 때 그 자녀나 다른 단일 쌍둥이의 정신분열병 발병 확률이 약 45% 정도다. 한쪽 부모만 환자거나 이란성 쌍둥이(DNA상으로 형제와 동일), 또는 형제자매가 분열병이 있었을 때 그 자식이나 형제의 발병확률은 약 10% 정도다.

혹자는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수정 때부터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동시발병률이 높은 것을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이란성 쌍둥이에선 환경적 요인은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동시 발병률은 환경적 여건이 다른 형제자매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와 차이는 결국 유전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분열병이 있는 33명의 양육아 친척들 500여명을 조사한 결

해 결정되는지 또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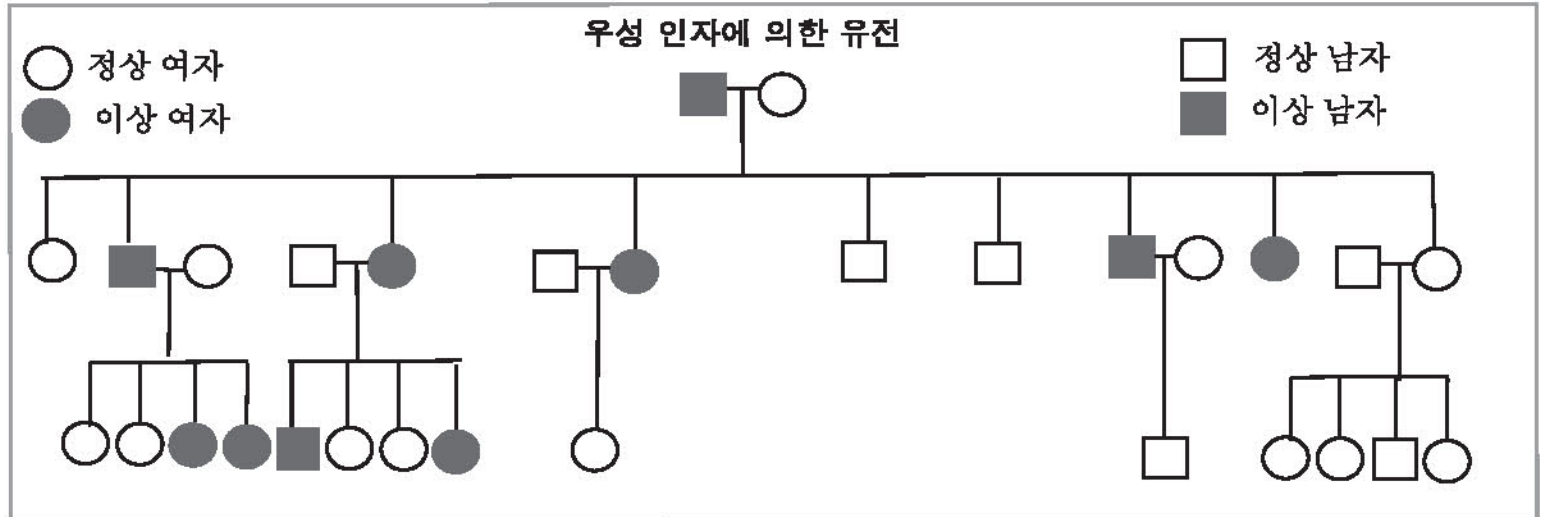
유전인가, 환경인가?

앞에서 일란성 쌍둥이는 100% 닳았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콧구멍 코털 숫자도 다르고 나이가 들면 한 사람은 대머리, 다른 사람은 머리가 희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일란성 쌍둥이 자매는 출산후 한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 입양, 한 사람은 교아원에 보내졌는데 30년이 지나고 보니 하나는 수녀, 다른 하나는 창녀가 돼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멘델의 유전법칙도 식물이나 하등 동물에서는 잘 맞다가 고등동물, 특히 인간에 와서는 엉망이 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마따나 개개인의 성장과정이 천차만별이라 너무



gene' 라고 하는데 주로 위기 상황이나 주위 환경이 나쁠 때 나타난다. 즉 갑자기 심한 기후변화나 기생충, 병원균이 자기를 해치려는 약물이 들어온 경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식물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같은 jumping gene이 난자나 정자에서 일어나면 물론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 있다.

먼저 예를 든 DNA 복사과정에서 글자가 틀린 것을 '점' 돌연변이 또는 '소' 진화라 하고 아예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바뀌치기 돌연변이를 '대 진화라 한다.

유전자(子)란 녀석은?

필자는 중국인들이 로마어나 영어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많다. Semen을 정을 통하다 흘려나온 액체라 해서 정액(精液)이라 한 것, 또 주로 밤에 일어나는 일이라 밤 야(夜)자를 넣은

plate)으로 적어낸 똑같은 모양과 숫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얼굴 모양이나 머리, 눈동자 색깔, 점이 있는 장소까지 100% 동일하다. 옷은 모습, 화넬 때의 양이나 IQ, 좋아하는 음식이나 여자 스타일도 95% 비슷하다.

언젠가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한 여인을 동시에 사랑해 그 여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결국 두 남자를 다 떠나버리는 영화를 보았다.

즉 유전자란 늑은 온갖 눈물의 '씨앗' 인 것이다. 이만하면 필자가 왜 gene을 유전자(子)로 번역한 중국인들에게 감탄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때의 자(子)는 아들 자(子)가 아니라 '종자' 에서와 같이 '씨앗' 자(子)다.

유전이 틀림없나?

지난 반세기 역학 통계를 보

과 친부모 중 하나, 양부모 중 하나가 분열병이 있는 경우 16%, 친부모 하나가 분열병이 있고 양부모가 정상인 경우 9%, 친부모는 정상인데 양부모 하나가 분열병이 있으면 3%, 친부모 양부모 다 정상이면 일반 대중과 같은 1%의 발병률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은 3%, 유전은 9%로써 유전이 환경보다 3배나 더 강하다는 말이다.

이 같은 통계는 DNA를 12.5%만 공유하는 사촌쯤 되면 동시 발병률이 거의 타인과 마찬가지로 1%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정신분열병의 발병은 한 두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말해준다.

대개 정신과 환자의 첫 질문을 내리면 통상 부모들이 "유전이 확실합니까?"란 질문을 하는데 이때 필자는 "51/49"라고 하면 어떤 이는 "휴!(안심)" 하고 어떤 이는 "하!(안타까운)" 하고 가는데 다음에 나를 찾아올 확률은 유전에 의

변수가 많고 돌발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낙인법(imprinting)이란 것도 있어서 그 유전자가 임마에서 왔느냐, 아파에서 왔느냐에 따라 작용이 달라진다.

아직까지는 환경이란 출산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실제로 환경은 수정란이 되는 순간부터 9개월 동안 태내에서 보내는 기간 중 생리적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이때 태아는 근거리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연약한 몸으로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환경이란 더 거슬러 올라가 정자 생성이나 난자 생성까지 가야 한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지혜가 아직 그곳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페이지에 계속]

< 6 페이지에서 계속>

선진화 포용 통일론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두 국가가 지배하게 되면(한반도 분단을 전제) 이 두 국가의 대립구조는 반드시 패권경쟁을 일으켜 지역 갈등과 전쟁과 빈곤의 근본요인이 돼 왔다. 이러한 소위 이국(二國)대립 패권론의 폐해를 크게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전제한 동아시아 평화 대안으로 한·중·일 3국이 정립하면 동아시아는 구조적 안정과 평화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삼국정립평화론(三國鼎立平和論)'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4강들에게 적극 설득한다.

신채호(申采浩)선생은 100여 년 전에 "조선의 독립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는 3차에 걸친 큰 전파(戰禍)를 겪게 됐다.

나아가 통일 후 북한·만주, 그리고 연해주 등 동북아시아 전체를 발전시킬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중·러·일 4국이 공동 기획·추진하는 '동북아 공동개발계획'을 제안한다. 물론 그 과정에 미국이나 EU등의 적극적 참여도 구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 등의 설립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만 되면 분명

동북아시아 지역은 21세기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 도약의 축이 될 것임을 천하에 밝혀야 한다. '삼국정립평화론'의 실천을 위한 이 지역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회의, 이 지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통일 이후에도 동아시아에 '3국정립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한 한반도 군사 동맹을 넘어, 한 단계 높은 동

맹의 구성 (2)식량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적 조치의 상호협력방안 (3)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체협력방식 (4)군의 관리와 사회질서회복 협력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동아시아 '3국 정립' 평화론과 동북아 개발 청사진 제시해야

역 정부들 중심의 다자간 안보회의 등을 주장하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동아시아 4국(통일한 반도·중국·일본·러시아)이 부전(不戰)전인 또는 상호 불가침선언을 주장하고, 이를 국제조약으로 발전시킬 것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부전선언을 감시하고, 사고로 일어난 지역분쟁 등을 관리하는 공동 위기관리 그룹 등도 제안해야 한다.

동아시아연합(EAU)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연합(EAU)을 만들고, 이 연합이 동아시아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21세기 '아시아 시대'의 꿈이고 목표임을 밝혀야 한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아시아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에 기여가 된다면, 통일한반도에서 북한지역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도 없음을 밝힐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미래구상'으로 4강에 통일외교를 적극 주도해야 할 것이다.

4강과 '한반도 전략 대화'

끝으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가능한 한 빨리 '4강과 한반도 위기관리 문제와 그 이후 신질서 창출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의 일방적 영향력의 과도작용 예방을 위한 사전 양해와 안전장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1)군사적 분쟁소지 예방을 위한 공동위기관리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북한 지역 관리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법적 합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북의 선진화 통일세력과 함께 주도하고 4강이 이에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법적 합의 준비가 시급하다.

맺는말

과연 우리가 이러한 민족적 대사업인 선진화 통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를 위한 각오와 능력, 헌신과 투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위한 깨어있는 지성과 언론이 있는가. 또한 국민들의 마음 가짐은 어떠한가. 적지 않은 의문이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했던 경험에서 궁극적

으로 '선진화 통일'이 성공한다고 믿는다.

첫째, '선진화 통일'은 역사적 대의(大義)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분단의 지속이나 새로운 분단의 등장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단지 완급의 문제는 있겠으나 한반도 선진화 통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둘째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믿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이 분탕질을 쳐놓아도 결국은 국민들의 역동성이 이를 바로 세운 경우가 많았다. 본격적으로 선진화 통일을 추진하게 되면 당분간은 국론 분열이나 사회 갈등도 깊어질지 모르나 분열이 깊어질수록 화해의 시기는 더 빨리 다가오고, 통합의 기운도 더 빨라지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지식인 언론인들이 냉전시대의 미망, 민주화 시대의 미망 등 모든 미망을 벗어던지고, 개인이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나아갈 올바른 길인 천하의公道(公道)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한반도 선진화 통일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며 그 실천으로 바로 남북의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고 역사의 대의라고 생각한다.

###

9 페이지에서 계속

수필로 풀어 쓴 '신경 유전학'

쥐 실험에서 보면, 태내에 3마리, 3마리씩 6마리의 태아가 나란히 자라고 있는데 만약 수놈의 좌우에 둘 다 자매가 자라는 경우와 양쪽 다 형제가 자라는 경우 출산 후 쥐의 성향을 보면 전자는 조금 여성다운 면이 있고 후자는 아주 남성다운 점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주위 형제자매로부터 들어오는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영향 때문이다.

이것은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태내 성호르몬의 분배가 동성에 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도 산모의 영양상태, 약물 복용, 각종 질병이나 심지어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태아의 뇌 세포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태아도 귀가 있으므로 산모가 클래식 음악 또는 뽕짝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나중 아이의 성격은 물론 opera가수

가 되느냐 판따라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이 된다고 하니 태교를 무시할 수 없겠다.

그러면 어머니가 노래를 잘 불렀을 때 딸이 가수가 될 소질을 타고 난다는 것은 과연 유전인가 환경인가?

대대로 음치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가 결혼했다고 하자.

음악에 관한 한 아버지 유전자는 0, 어머니 유전자는 100이라면 자녀들의 음악적 소질은 50이 돼야 한다. 그런데 유치원에 들어가 보니 큰 애는 아빠를 닮아 음치고, 작은 애는 엄마를 닮아 노래를 아주 썩 잘하는 것이었다.

알아보니 큰 애를 임신했을 때는 신혼 초에 한창 시집살이하느라 산모가 노래는커녕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 사는 꼴이었는데, 3년 후 작은 애를 임신했을 때는 미국 이민 온 덕택으로 설거지나 빨래를 하면서도 흥얼흥얼 행복을 만끽하고 살았다고 한다.

대개 첫 애는 차분하고 음울한 성격이 많고, 막내는 덜렁대지만 발랄한 성격이 많은 것은 다분히 환경 탓인데 환경은

수태 시점, 또는 더 올라가 성세포가 생길때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출생 후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기한 아버지는 자신의 열등감을 만회하느라, 또 어머니는 자기의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해 보려고 두 딸을 줄리어드를 목표로 어려서부터 가혹할 만치 음악수련을 시켰다.

처음 시작한 작은 애가 끼를 타고 낫기 때문에 월등히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이놈은 영창율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50%의 자질을 타고난 큰 애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줄리어드를 나와 피아니스트로 성공했다.

이 때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유전에 의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유전자의 소질이 개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계인자

부계 인자

열성 인자에 의한 유전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정상인

Aa: 잠복인

aa: 발병자

AA: 정상인
Aa: 잠복인
aa: 발병자

환경이 나쁘면 아무리 우수한 유전자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반대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험한 쥐 Doogie에서 보듯 유전적 조작으로 두뇌 회전이 빠른 쥐를 개발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반대로 만들어 낸 두뇌 회전이 느린 '바보 쥐'를 아주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길렀더니 그 결과는 똘똘이 쥐와 바보 쥐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태어나 신생아를 보고는 아무도 그들이 나중에 미스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로 자라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여성의 미(美)도 유전보다는 환경에 지배되거나 좀 안생기게 태어났어도 열심히 가꾸면 절세미인은 못되더라도 못사내거나 홀리는 요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누구라고 예기는 안하겠으나 Unity Bank에도 한 사람있다.

###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 (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동문들의 동정(직업 변경, 이사, 활동 사항 등) 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이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3페이지 정도(한글 약 5천자, 1천 단어)입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동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관광 여행기



조 태 환 (상대 56년 입학)

[11월호에서 계속]

페루의 음식은 별로 맛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관광 특성상 그 지역 특수의 강한 조미료를 피한 식당엔 간 까닭인지 먹어 본 음식 거의 전부가 초고추장을 찍 쳐서 먹고 싶을 정도로 양념이 너무 텁텁해 병원 음식 먹는 것 같았다.

세계 각국의 풍습과 음식을 소개하는 Travel Channel은 페루에서 만 맛볼 수 있는 음식 중 Alpaca Steak, Guinea Pig, 동물원에나 있는 Amadillo 등을 소개했다. 필자는 Amadillo는 일반 식당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리라고 단념을 했었지만 Alpaca와 Guinea Pig은 시식할 작정을 하고 여행을 떠났다. Alpaca는 막상 먹어 보니 소고기보다 맛이 없었다. 고기의 질 때문인지 조리방법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여행 프로그램 중에 일반 시민의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종류충이라고 짐작되는 식당 웨이터의 가정에 우리 일행이 갔었다. 저녁식사는 콩, 채소 등 육류는 거의 없었는데 한 접시에 Guinea Pig 구이가 나왔다. 역시 조리방법 때문인지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서 한 조각만 먹고 말았다. 식사 후에 나오다 보니 옛날 우리 농촌에서 닭을 놓아 길렀듯이 Guinea Pig을 마당에서 기르는데 그 곳의 개나 고양이는 Guinea Pig을 잡지 못하도록 훈련 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열대지방 과실들은 설익은 것을 따다가 파는 까닭에 진짜맛이 나지 않는다. 페루에서 먹은 Star Fruit는 맛이 있었고 Passion Fruit라는 과실은 꼭 우리의 홍시 비슷한 맛이 나는데 왜 그렇게 정열적인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다.

페루에는 일반인 택시 외에 mototaxi 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던 삼륜 화물차를 2인승 택시로 만든 것이다. 너무나 소리가 요란하지만 기를 절약하는 경제적인 택시라고 생각되었다.

페루의 연예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수도인 Lima 에 도착하던 날 입선으로 45달러에 디너쇼를 보았다. 음악은 Latin 계통이 아니라 거의 미국 음악을 쓰고 춤도 미국 쇼들과 비슷했다.

서커스 동작을 많이 해서 관객의 박수를 받았고 흥미로웠던 것 중에는 탭 댄스였는데 탭을 할적마다 어찌나 크게 소리가 나는지 “저 친구, 관절이나 발목이 부서지겠다”할 정도로 정열적으로 춤

을 추어 관객의 열광을 받았다. 또 Comedy dance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무희들이 궁둥이에 종이를 달고 나오면 그 종이들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며 무희들은 궁둥이를 선정적으로 빨리 흔들어 불을 끄는 show였다. 다음에는 관객을 끌어 올려 똑같은 Fire Hip Dance를 시켜서 관객들을 더욱 열광시켰다.

두번 제로 본 Lunch Show 식당은 태평양을 배경으로 무대를 꾸며 놓고 페루의 지방 댄스를 추었는데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오페라 Carmen 중에서 Carmen 등 세 집씨 여인들이 투우사를 유혹하는 Flamingo Dance를 추어서 관객의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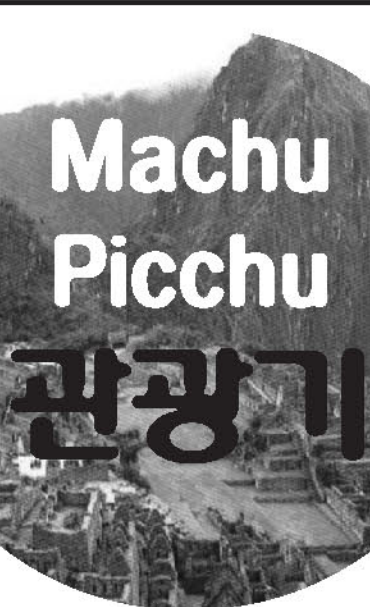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접한 대중음악은 여행 그룹의 Farewell Dinner를 하는 식당에서 펼쳐졌다. 뉴욕의 남미계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Latin American Band가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테이블에 찾아와서 공연하는 식으로 아주 친근감을 주며 계속 연주하는데 페루 특유의 통소와 피리, 작은 피리 몇개를 한꺼번에 묶어 마치 xylophone을 연주하는 것처럼 부는 페루 특유의 피리 연주했다.

그 악단의 CD 한 장을 10달러에 샀다. 페루의 피리 소리는 high pitch 소리로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특이하다. 집에 돌려 온 외손녀 외손자가 처음 이 페루 CD를 듣더니 즉각 노래를 춤을 추어 우리 부부도 박수를 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겼다.

페루는 2만여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증거가 나오며 8천년전부터는 계속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제구가 조금 적고 피부가 검은 편이다. 페루 인구 2천8백만명중(2007년도) 절반은 원주민, 3분의 1은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 10%는 백인, 노예 흑인 후손들이 1%, 농업 이민으로 온 중국계와 일본계 페루인들도 상당 수 있는데 리마시에 인구가 30만의 차이나 타운이 있다고 한다.

마추 피추까지 미국에서 가려면 Miami 나 Atlanta 에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중서부쪽의 페루 수도 Lima로 가서 동북부의 페루의 옛 수도인 Cusco 로 1시간 반 정도 비행해야 된다. 이곳이 해발 1만1천 피트 고산 도시로서 잉카제국의 수도였다. 여기에서 하루 정도를 묵으면서 시내관광을 하고 몸을 고산지대에 적응시킨 그 다음날 아침 기차로 두어 시간 남쪽 Aguas Calientes 라는 역에서 내려 호텔에서 여장을 푼다.

점심을 먹고 마추 피추 산성이 있는 곳으로 30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이 비포장 단행 도로로 좁다. 아래에서 차가 올라오면 위에서 내려오던 차는 모서리에서 정차했다가 올라오는 차가 지나가면 다시 내려가는 식으로 왕래를 하는데 빠스는 온통 먼지투성이다. 산성 입구에 도착하면 산 아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마을 호텔이 있는데 어찌나 투숙 신청이 쇄도하는지 몇달전에 예



약을 하며 방 하나에 하루밤 투숙료가 9백불이다. 그곳까지 찾아왔으니 거기서 하루 밤은 자고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호텔은 언제나 만원이다.

마추 피추 공중사진을 보면 정말 달동네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높은 산의 꼭대기 조금 아래를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입구 대문을 태양신 숭배자들처럼 Sun Gate도 만들고 가운데에는 5백명 정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다. 광장 사방에 신전, Royal Enclosure, Sun Dial, 천성대, 주거 건물들, 대장간, 곡식창고, 탑 등을 지어 놓고 동네 위에 있는 산에서 물을 끌어다 상수도 시설까지 해놓았다. 이 산성을 1450년경에 짓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자가 없어서 역사기록이 없는 나라인 까닭에 페루 고고 유물중 보석이라는 이 산성이 신전인지, 왕의 여름 휴식처인지, 군사기지였는지 아니면 세 가지기능을 겸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 지역에는 화강암이 많아 모든 건물을 화강암으로, 신전은 대리석으로 지어 놓았다. 이 마을을 조감도처럼 내려다 보려면은 마을 앞에 있는 조금 더 높은 산에 있는 관망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이 통로가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다. 또 마추 피추 마을 뒤에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따로 있는데 왕복 두어시간 걸리는 고약한 등산길로서 올라가지 않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만나절 정

도를 마추 피추 산성에서 보내다 생각하는데 우리 그룹은 이들을 산성에서 지낸다고 관광사는 크게 광고해 필자에게는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빠스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길은 대부분 자연석 계단이라서 높이, 넓이, 경사가 계단마다 각기 다르다. 마을 들어가는 길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었으나 마을에서 관망대로 가는 통로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생긴 고약한 길이었다. 우리 같은 ‘노인부대’들은 등산이 어려운 것을 알아 우리의 안내원은 지팡이 13개를 준비해 왔는데 순식간에 지팡이가 다 나가 버렸다.

필자는 보청기를 갖고 가지 않았던 까닭에 안내원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직한 튜브를 메고 오른 손엔 지팡이, 왼손엔 아내의 팔을 쥐고 안내자의 뒤를 바짝쫓아 맨 선두에 나섰다.

그러나 계단의 넓이가 20 센티에서 갑자기 60 센티로, 높이가 30 센티이던 2미터로 변하는 식의 오르길에서 필자가 안내원의 뒤를 쫓아 가기는 힘들어 필자 부부는 맨 뒤로 처지게 되었다. 남편 탓에 사지 멀쩡한 아내도 등산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 아내를 일행과 보내고 나는 제2안내자와 남았다. 제2안내자와 둘이서 절문과 설명을 나누며 두어시간을 보낸 후 일행이 돌아 왔다.

하산후 반주 한잔에 저녁을 먹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쉽게 오지도 않았다. “수십시간 들어 몇만 리를 고생해 가면서 왔는데 산성을 코 앞에 두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오기가 났다. 다음날은 자유시간에 사람만 마추 피추 최정상으로 등산하게 되었다. 최

없이 올라가는 길도 어제보다는 훨씬 쉽게 느껴졌다. 아내는 전날 들은대로 필자에게 산성을 설명해 주었다. 여러 건물들이 지붕은 다 없어지고 벽돌벽들만 남아있는데 웅기 종기 잘 짜놓은 바둑판처럼 서 있었다.

잉카사람들의 건축기술

은 지금도 불가사의한 것인데 신전과 왕궁 등은 mortar (세멘트 등의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고 그 큰 돌들을 완전하게 깎아내어 그냥 얹어 지은 것인데 지금도 돌과 돌 사이에 백지 한장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 붙어 놓았다. 문자가 없어서 기록된 역사나 설계도도 없이 돌맹이로 돌맹이를 끼어서 어떻게 그런 건물들을 지어 놓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신전의 벽구석이 깨어진 부분을 정사각형으로 도려낸 후 마치 돌칼로 잘라서 만든것처럼 정사각형 돌로 짜집기를 감쪽같이 해 놓은것을 볼 수 있었다.

아내의 안내로 관망대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조경’까지 한 후 최정상은 다음 번에 와서 정복하기로 하고 천천히 내려 왔다. 잉카제국이 번창할때 모두 아홉 개의 산성을 지었을 것이라는 데 여덟 개의 다른 산성들은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나 마추 피추는 산 아래에서 보이지 않아 파괴를 면했을 것이라고 한다. 군인 3백명 정도가 상주했을 것이라는 이 산성은 상당한 물자를 자급자족하도록 산을 깎아 계단식 밭을 만들어 농사도 지었지만 추가 보급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니 결국 자진해서 모두 떠나 버렸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마추 피추의 ‘발견’

마추 피추는 1450년 경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페루가 망한 1535년 이후 막을 내렸을 것이라는 데 인적이 없어지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도시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정글 속으로, 역사 속으로 살아져 버렸던 것이다. 이 마추 피추가 ‘발견’된 경위에는 Yale 대학교 측과 페루 측의 주장이 다르다. Yale 대학교 측은 1928년 Yale 대학교 고고학 학자 Hiram Bingham 이 비행기를 타고 마추 피추 상공을 지나가다가 이 산성을 ‘발견’ 했다고 주장한다. 페루 측은 “우리는 남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뿐, 이 산성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어디서 Bingham 이 소문을 듣고 와서 마을 사람에게 노동자 3개월분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그사람을 설득해서 마추 피추 산성이 있는 곳까지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페루 비국 역사의 반복이었다.

Bingham 은 고고학자들의 동행도 없이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나무를 막 자르고 그과정에서 많은 건조물들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유물들을 모두 “훔쳐”가버린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Yale 대학교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이 유물들을 페루로 반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12페이지에 계속]

관광 여행기

[11페이지에서 계속]

하기사 돈을 다 내놓고 소장품을 수집했다면 오늘날 파리의 루브 박물관이나 런던의 대영제국 박물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냐고 대답하는 서양사람들이 많으니 나라나 개인이나 “억울하면 출세하고 볼 일이다.”, 우리도 루브 박물관 지하실 어느 실험에 보관되고 있다는 병인양요때 프랑스 해군에게 강화도의 사찰에서 강탈당한 “조선왕조실록” 원본 한 점을 찾아 와야 할 터이고...

마추 피추를 떠나 Cusco로 가는 기차는 아이로니컬하게도 Bingham Express 라고 불리우는 데 우리 일행이 탄 칸은 1등이었던지 아주 좋았다. 기차는 웅장한 산림, 아름다운 산과 계곡들을 지냈으며 가는 중에 기차안에서 이쁜 모델들이 나와서 Baby Alpaca Wool 의 상품으로 Fashion Show 를 해서 관광객들 특히 여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했다.

Show 는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로 진행되어 일본 관광객이 많은 이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아 내 도 Fashion Show 가 좋았다고 얘기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Cusco 에 가면 양질의 wool 제품을 살 수 있다고 듣고는 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Baby Alpaca Wool 제품의 선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페루 특이의 동물중에 야마 (Llama) 와 알파카 (Alpaca) 가 있는데 조그만 당나귀 크기로 작은 낙타처럼 생긴 이 동물들은 페루 사방에서 털과 고기를 위해 기르고 있다. Llama 는 털이 거칠어서 털로 로프같은 것을 만들어 쓴다고 하나 알파카 특이 1년생이 안 되는 늑에게서 잡아내는 Baby Alpaca Wool 은 털이 부드러워서 자연색갈에 따라 아주 고가로 팔린다고 한다. 기차에서 내려서 페스로 가던 중에 알파카 목장에 우리 일행을 데리고 가더니 준비해놓은 풀을 우리에게 직접 알파카에게 먹여보게도 하고 알파카를 만져보게도 하였는데 털이 하도 길어서 땅에까지 닿는 것으로 보아 털 섬유가 길고 좋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페루 상거래에는 에누리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무슨 물건을 얼마나 에누리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곧 익숙해 질 수 있었다. 무조건 30% 에서 절반을 깎고 보면 실제 가격이 나온다. 별로 많은 물건들을 산 것은 아니지만 아내는 에

누리 흥정에 아주 신이난듯 보였다. 옛날 동대문시장과는 달리 산 물건을 다음날 다시 들고 갔더니 바꿔주기도 해서 무조건 바가지 싸우고 보자는 식의 상도덕은 아닌 것 같았다. Baby Alpaca Wool 제품을 파는 가게는 여자들의 오래 shopping 하는 것을 싫어하는 남자들을 위해 우리가 들어가지마자 “선생님은 Coca leaf Tea 나 한잔 드십시오” 하면서 가게 중간에 다방처럼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앉혀놓고 차를 대접했다. Coca 차가 고산증에 좋다는 얘기에 호기심이 동해 목차 비슷한 맛이 나는 차를 잘 마시고 있는 씹어먹어보았다. 덕분에 그날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좀 고생했다. 페루에는 쉽게 분별될 수 있는 위폐가 많다고 조심하라고 했으며 고액권 달러나 여행자 수표는 지방에 가면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도 한다. 돈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었거나 돈에 낙서가 있으면 받지 않으며 또 credit card

를 쓰면 10% 정도 더 부과하는 수가 있어 알아보고 쓰라고 안내책자들은 얘기했다. 더러 나쁜 식당 같은 업소에서 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떠제되는 18% 세금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 청구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라는 충고도

들었다.

마추 피추 산성을 떠나서 오는 길에 일행은 Amazon 강으로 가서 약 한시간 반 동안 고무보트 한 배에 8명씩 타고 강 하류로 내려 갔다. 대부분이 잔잔한 강물인지라 8명이 함께 노를 저어가야 했지만 가끔은 물살이 급해지는 지역들이 있어서 노인들이 어린애들처럼 소리치르고 줄거워 했다. Amazon 강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다는 시적인 감상도 있었지만 지구 산소의 삼분의 일을 공급한다는 양쪽 강변으로 보이는 정글은 장관이었다. 조금만 더 쭉어서 여기를 왔다면 일주일짜리 정글 캠프 프로그램에 아마 참석 했을 것이다. 이 뱃놀이에서 무한한 자연 위에 또 하나 경이로운 경치가 펼쳐진다. 잉카 trail 도 강변을 따라 페루 사람들이 산을 계단식으로 개간한 농장을 볼 수 있다. 감자, 옥수수, 조 등을 경작해 먹고 살아 왔는데 어떤 곳은 산아래서 부터 꼭대기까지 100층이 넘는 계단식 밭이 있고 아내는 81계단까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웅장한 대자연에 개미같은 작은 인간들이 도전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페루도 코케인등의 마약 밀경작

아래 사본(9대-10대 회장단 인수인계 서류 목록)은 회칙에 의해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오인한 회칙위원장의 해석에 따라 회보에 공시하는 것임

제 10 대 회장단 인수 인계 Checklist

회칙위원회 (2007.5.19)

회장단 인수인계는 아래 사항을 필히 갖추어 임기 만료 1개월전 부터 실시하여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차기 회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한다.

#	인수인계 항목	서류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비고
1	회칙및 세칙원본(한글 및 영문)		<i>[Signature]</i>	<i>CKK</i>	<i>[Signature]</i>
2	a) 비영리 단체등록 서류, 사본 일체 b) IRS 세금보고서류, 사본 일체		<i>[Signature]</i>	<i>CKK</i>	<i>[Signature]</i>
3	경상 업무 서류		<i>[Signature]</i>	<i>[Signature]</i>	
4	재정, 은행 계좌		<i>[Signature]</i>	<i>[Signature]</i>	
5	회원 명단 (Soft and Hard Copies)		<i>[Signature]</i>	<i>[Signature]</i>	
6	a) 관악 후원회, b) 종신 이사회비, c) 특별기금, 관련 서류및 집행 서류 일체		<i>[Signature]</i>	<i>[Signature]</i>	
7	모교 발전 기금 관리위원회 기금 관련 서류 및 은행서류 일체		<i>[Signature]</i>	<i>[Signature]</i>	
8	감사를 받은 재정 a) 경상비, b) 관악 후원회, c) 종신 이사비, d) 특별기금, e) 모교 발전기금 관리 서류 일체		<i>[Signature]</i>	<i>[Signature]</i>	
9	보관 중인 과거 회의록 및 인수인계 서류 일체		<i>[Signature]</i>	<i>[Signature]</i>	
10	회보 편집을 위하여 축적된자산 과 Know-How 일체 (Computer Data, Disks, CD, Software, Photographs, Design 등등)		<i>[Signature]</i>	<i>[Signature]</i>	
11	기타 서류 일체	<i>Computer Hard Ware</i>	<i>[Signature]</i>	<i>[Signature]</i>	
12	후자 재정연계 여부			<i>[Signature]</i>	후자 이월금 \$1681.27

감사 이름/서명

김창수 Changsoo Kim

날자:

9/2/09

회장 이름/서명

송 순영 Song Sunyoung

날자:

9/2/09

9대 회장

이정우

부서별 임원들의 평의회의 전 회계별 목록

사무 총장/서명

Chung C.K.

날자:

9/2/09

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나 밀렵속에 경작들을 하고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경작지를 쉽게 발견할 수도 없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기그릇을 굽는 도요소를 방문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접시류의 실생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벽에 걸어 두고 볼 수 있는 예술적 작품까지 만드는 곳이 있다. 페루 전국에 퍼져있는 고고박물관에 가서 보면 페루가 예전부터 도자기 사기 등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Lima 방문때 시간이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가보지 못한 곳이 Sala Erotica 라고 한 박물관의 성 예술 도자기 전시관이다. 안내 책자에 의하면 이 전시관에는 고도의 예술성이 있는 고대의 도자기 사기 작품들이 성기, 나체 에루, 성교 등을 사실적, 종교적, 예술적으로 humorous하게 묘사해 놓아 페루인들의 예술성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페루는 금은이 많아 옛날부터 신전과 왕궁을 금은으로 장식하여 왔는데 그것이 스페인의 정

복 원인중의 하나이다. 우리 일행은 금은 귀중품 제조 공장으로 안내되어 제작과정을 보았으며 제품 전시장에서 직접 제품을 살 수도 있었다. 아내는 은팔찌를 하나 골랐으나 너무 길어 대금을 지불한 후 그날 저녁에 호텔에 손목에 맞게 줄인 은팔찌를 배달해 주었다.

Andes 산맥이 페루를 지나가는 까닭에 정글 등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그 대신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여러군데에는 자연 노천 온천들이 있다. 소금은 바다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페루는 산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많은 염분이 들어 있어서 그물을 가공하여 소금을 생산한다. 여행 일자의 제한으로 이번의 여행에서 가보지 못한데만 해도 사막에 끝없이 그려놓은 직선과 기타의 그림으로 구성된 Nazca 선, 미국의 Grand Canyon 길이보다 두 배가 넘는다는 Colca Canyon, 해발 1만2천 피트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배들이 항행할 수 있는 Titikaka 호수, 갈대 같은 나무를 엮어서 만든 인조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 수상마을" 등은 가보지 못했다.

그러나 천주교 국가인 이 나라에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매춘녀들이 몇십 만명이나 된다고 하며 요즘엔 낙태허용법안 이 국회에 상정되어 큰 이슈가 되고 cocaine 등 마약사용자들이 많은 등 정리되어야 할 사회문제들도 많다고 한다.

"Beggars on the gold chair" 라고 후진성에 대한 자가비판을 하고 있지만 페루는 130만평방 KM (80만 평방 마일)이나 되는영토에 무진장한 자연자원과 광물, 1400 KM 나 되는 태평양 연안에서 거둬 들일 수 있는 수산물과 전국 어디에서나 파기만 하면 나타나는 고대 유적지, 국토를 세로 지르는 Andes산의 등산, 온천 등 휴양지, Amazon 밀렵탐험, 캠프, 희귀한 동식물관찰 및 연구, 남미에서 페루를 가장 길게 흐르는 아마존 강을 이용한 휴양 및 개발 등 앞으로의 발굴,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관광자원등을 감안하면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정치를 잘 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이다. (끝)

음악칼럼

팝송 이야기<3> Tin Pan Alley <A>

뉴욕 '맨해튼 28가'에서 유래

1850~1910년 미 대중음악의 주류 이뤄



주혜정(음대 92)

이번에는 'Early Tin Pan Alley'에 대해 알아보죠.

19세기 말에 되자 동부와 중서부에 위치한 음악 출판사들이 점점 뉴욕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주로 클래식 음악을 다루었던 출판사들이 차츰 극장이나 댄스 홀에서 쓰이는 대중적인 음악을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음악 출판사들은 대부분이 동유럽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출판사들은 맨해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특히 '28가'가 'Tin Pan Alley'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서로 다른 조와 박자로 연주되는 피아노의 울리는 소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새로운 노래들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일은 주로 'Song plugger'라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어떻게 홍보했는지 아세요?

낮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백화점에 가서 그들이 일하는 출판사의 최신 노래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또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가수들이 그 곡들을 무대에서 연주하도록 홍보했습니다.

동유럽 유대인이 제작 연간 3천만장 판매

이 방법은 꽤 성공해서 1910년 쯤에는 미국의 1년 연간 악보 판매량이 3천만 장이나 되었습니다.

이같은 추세로 'Tin Pan Alley' 노래들은 1850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 대중음악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Stephen Foster에 의해 성립된 대중 노래 작곡법은 'Tin Pan Alley' 작곡가들에 의해서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Tin Pan Alley' 노래의 구성 형식은 Verse(절)-Chorus(후렴구) 아니면 AABA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주로 낭만적이거나 감성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반주는 주로 피아노·반조·금관악기·현악기를 사용했습니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멜로디가 정해져 있고 대선율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즉흥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또 노래와 반주가 서로 주고



받는 테크닉(Call and response)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악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Irving

Berlin·Paul Dresser·Harry Von Tilzer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노래로는 'After The Ball', 'Alexander's Ragtime Band'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Irving Berlin (1888~1989)'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죠.

'Berlin'은 20세기 미국 작곡가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로 10대에 'Song plugger'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작곡가

'Berlin'의 이름은 1911년 출판된 'Alexander's Ragtime Band'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ragtime'과 음악적으로 별로 연관이 없지만 즉시 150만 장이나 되는 악보가 팔리는 엄청난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곡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누구나 귀에 들려오는 'White Christmas'입니다.

또 다른 'Tin Pan Alley' 작곡가들과 다르게 그는 브로드웨이와 영화를 위해서도 곡을 썼습니다.

'Blue Skies'라는 노래는 첫 번째 유성영화(talkie)인

'The Jazz Singer'에 쓰였습니다.

'Berlin'은 무려 60여 년 동안 이나 곡을 쓴 가장 다산(多産)적인 Tin Pan Alley 작곡가입니다.

AcropolisTimes.com

차정민군 수학경시대회(AMC)서 만점

차재운 동문 아들 '수학의 귀재' 정평

차재운 동문의 아들 차정민(미국명 케빈 차)군이 미 수

학경시대회에서 25점 만점을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차 군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랜초 샌 조아퀸중학교 8학년

에 재학 중으로 미국 수학협회가 주최한 수학경시대회 중 가장 권위있는 AMC 대회 중학생 이하 부문(AMC 8)에 참가해 만점으로 1위에 오른 것이다. AMC는 CalTec, MIT의 입학지원서에서도 점수를 요구할 정도로 지명도 높은 시험이다. 중학 2학년 이하가 치르는 레벨 8을 비롯 해 10(고 1이하), 12(고 3이하), 레벨 12의 상위 5%와 레벨 10의 상위 1%가 참가하는 에이미(AIME), 수학 올림피아드(USAMO)등이 있다.

차재운(EDU4U 학원 원장) 동문은 "미 수학협회로부터 12월 8일 성적을 통보받았다. 아들은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서 24점을 받았다"고 했다.

정민은 일찍부터 수학에 재능을 보여 7학년 때 미 대학 입학시험(SAT) 수학과목에서 700점 이상을 받아 최고 영재 클럽인 'SET'에 가입했다.

다음은 지난 10월 Acropolis Times에 '수학의 귀재...이번 AMC 8에서 만점을 목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다.

근작 SET 뉴스레터에 따르면, 차재운 동문 아들 차정민군(8학년)이 이번에 새로 SET

멤버로 가입했다. 미 대학입학 시험 중 하나인 SAT는 각 과목 점수를 200~800점으로 재계산해낸다. 이때 대략 중간이 500점. 예를 들어 누군가



SAT 수학에서 500점을 받았다면 그 학생은 미국 12학년생 기준 수학실력이 중간 정도라 보면 된다. 700점은 대략 12학년 기준 상위 5%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누가 SAT에서 수학 700점을 받았다면 수학에서 미 12학년생 상위 5% 안에 든 것이다. 그러니 12학년이라도 700점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를 만 13세 전에 해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클럽이 바로 SET다.

SET은 'Study of Exceptional Talent'의 약자. 미국에서 영재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대학 CTY의

특별 멤버십 클럽이다.

매년 200~400명 가량만 가입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 SET은 만 13세 전에 SAT Reasoning Test에서,

Critical Reading 혹은 Math 과목에서 70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에게 가입 자격을 준다. 12학년생에게도 어려운 과제를 중학 7~8학년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거꾸로 여기에 해당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차재운 동문 아들 차정민군이 만 13세

전에 SAT를 치러 수학에서 이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정민군은 수학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작년 7학년 때 AMC 8에서 24점을 받았다. AMC는 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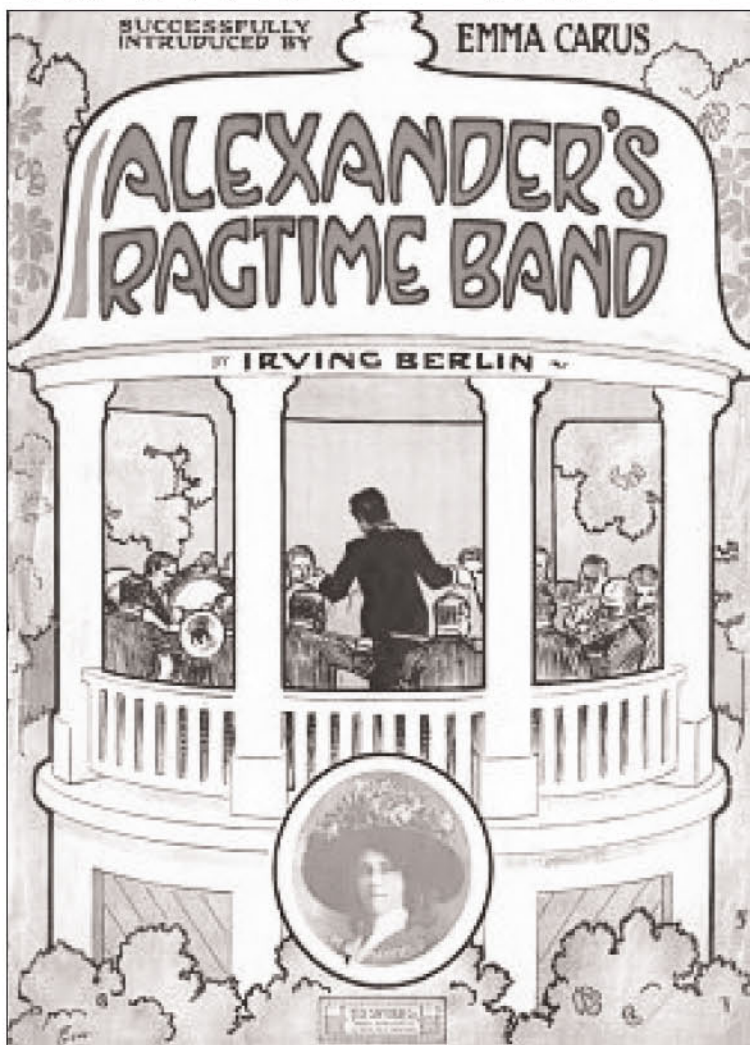
학경시대회 중 최고

다. AMC 8은 8학년 이하가 도전할 수 있다. 즉 AMC 8은 중학교 수준에서 수학의 최강자를 가리는 경시대회다.

AMC 8은 모두 25문제로, 4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매년 100명 남짓한 학생들만 만점을 맞는다. 대개 수학 좀 한다는 학생들도 이 시험에서 15~20개 정도 맞는데 7학년이 하나

틀렸으니 빅뉴스였다.

Acropolis Times



서울대학교 미주동문 ‘인명록’ 12년 만에 새롭게 발간

SNUAUSA(발전기금 위원회)는 작은 기부금을 받고 미주동문 ‘인명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동문님의 기부금은 모교를 돕는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5(미국거주동문)를 책 만드는 비용과 우송료로 생각하시고 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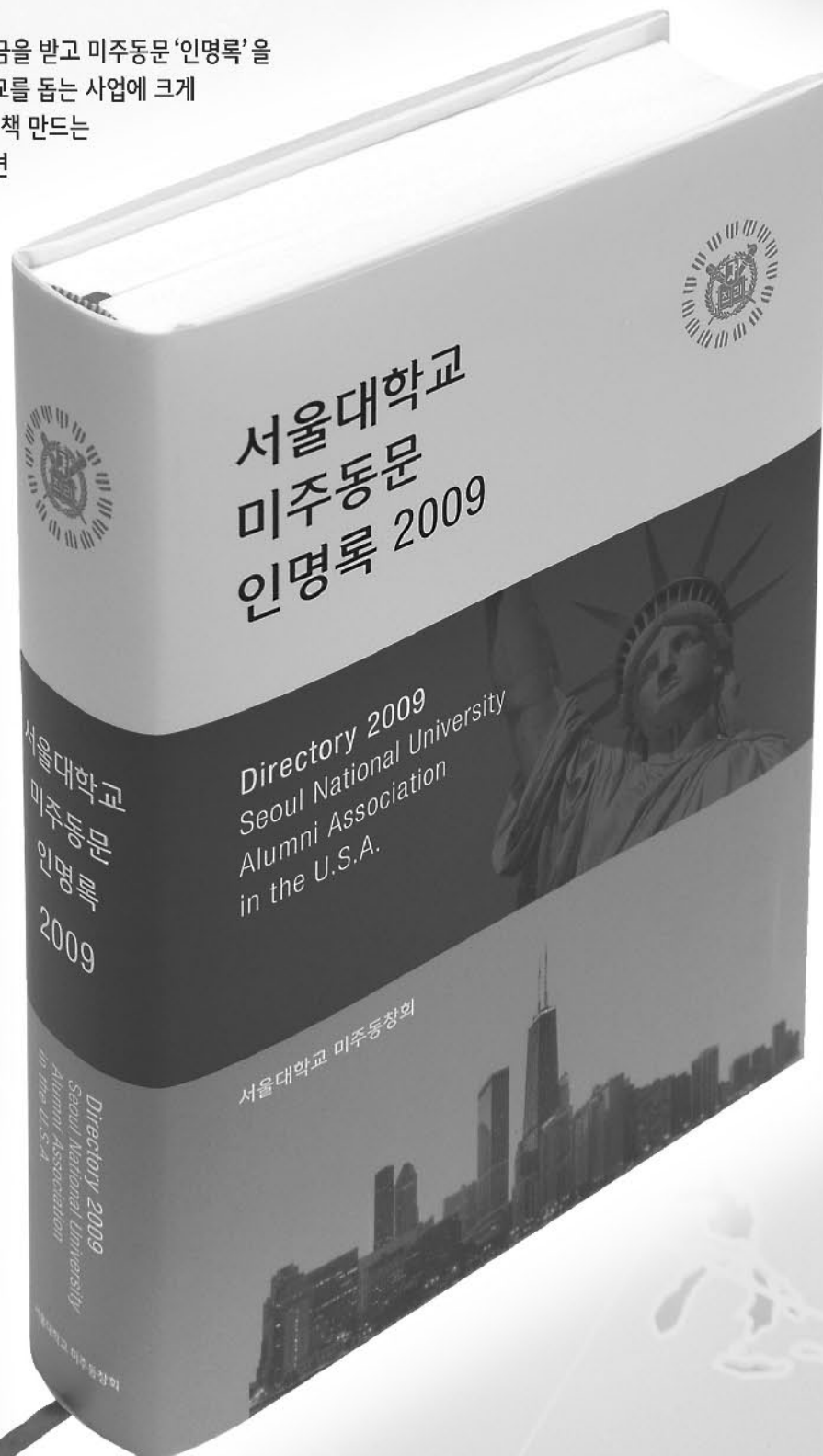
모교를 돕는 사업은 모든 동문의 작은 정성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문님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기다립니다.

7,605명 수록

내용

*인명편, *직업편, *색인편
미주동창회 사업 및 연례행사
총동창회 관악회
역대 미주동창회장
총신이사 명단
미주 26지역 동창회 회장단
미주 지역 동창회 회원 현황
제16, 17, 18대 평의원회의 참가동문
미주동창회 회칙
총동창회 단대별 동문 현황
모국 단과대학 동창회 사무처 주소
서울대 동창회 해외지부



좌측 이미지는 실제 인명록 사이즈의 60%입니다.
(실제 사이즈: 7 5/8" w, 10 1/2" h, 2" thickness)

기부금- 미국 거주동문: \$55(우송료 포함)
캐나다 거주동문: 온타리오 동창회로 구입 문의
(문의: 이승찬 회장, Tel: 647.346.2405)

지불방법-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발송시작- 10월 말

보내실 곳- SNUAUSA(발전기금 위원회)
131 West 35th St.,(New York Golf Bldg.) New York, NY 10001
Tel: (917)514-1939, (917)494-0223
E-mail: snuausa@gmail.com

지역 동창회 소식

시카고·온타리오



11/29/2009

시카고 동창회

Drury Lane에서 연말 총회 열어 8명에 장학금, 신입회장 이영우 동문 선출

시카고 동창회 2009년 총회가 11월 29일 Oak Brook에 있는 Drury Lane에서 130여명의 동문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신입 회장단을 소개하고 장학기금을 수여 한 후 연말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용주 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노성숙양의 탄찬 음악, 이훈병 동문(공대 69입)의 타이저 시범, 문병훈 제3대 회장의 건배에 이어 디너를

마친 후 총회로 들어갔다. 노영일 회장은 이임 인사에서 그 동안 이사들과 임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지역 동창회는 젊은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방안과 장학

사업을 계속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순영 미주 총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창회의 사업 중 핵심인 회보발행 기금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은 회보발행의 안정 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총동창회 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닦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모교의 범인화 이후 동문들의 후원을 계속하는 것이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에 이어 윤여정 재무는 “금년에 시카고 동창회가 약 2만8천달러의 수입으로 2만

2천달러의 지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그 중에는 교육 문화재단, 시카고 문화회관, 동창회 장학재단 등에 1만450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10월 24일 개최한 음악회를 통해 마련한 기금 8천8백달러를 음악회 준비위원장 김연화 동문이 이영우 장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시카고 동창회 장학 위원회는 올해 8명에게 각각 1천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6만600여 달러의 기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어 노영일 회장은 올해 15명의 장학금 신청자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장학생수를 8명으로 늘린 선발 과정을 발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의 장학생은 김유승·김은일·김진희·김태현·나인영·신충화·이요한·황인구 등이다.

노영일 회장은 마지막 회무로 전임 정호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2011년도(차차기) 회장으로 추천받은 김사직 동문의 선임을 인준받았다.

2010년 시카고 동창회장에 취임하는 이영우 동문은 임원단을 소개하고 “젊은 세대의 동창회 참여를 장려하는 과제에 주력할 것이며 내년에 시카고에서 개최될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를 지원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총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김우경 악단의 음악과 김연화 음대회장이 리드하는 라인 댄스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2010년 회장단은 시카고 지역 동창회원 명부 추가 정정판(70여명의 주소변경 등제)과 2009년의 사진 회고록을 담은 CD, 와인 1 병씩을 이날 참가한 동문들에게 선물했다.



온타리오 동창회

현·전 총회장 모신 송년회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 동창회가 토론토에서 열렸다.

약 2개월 전부터 초대 받았던 일이라 국경을 넘어 간다는 흥분을 가슴에 담은채 이진구 전 미주 동창회장의 차

로 국경을 넘었다.

미주 총동창회 송순영 현 회장과 이진구 전 회장(명예회장)이 초청되는 중에 양 박도 초대된 것이다.

이진구 전 회장과 동행한 양

박은 뒷 좌석에서 그냥 떠들어 대고 먹고 마시며 약 10시간 만에 캐나다 Hamilton으로 부터 오원균 동문의 안내를 받으며 10여 명의 농대 동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회관으로 갔다. 그곳에는 60년만에 만나는 동문도 있었다.

이튿날, 토요일 저녁, The Country Club에서 열린 온타리오 송년회에는 200여 명의 참석자로 모든 자리가 꽉 메

워졌다.

음대 동문들의 연주로 시작된 동창회 1부는 고급스럽게 마련된 음식과 와인을 곁들여 제 2부 순으로 넘어 갔다.

지역 동창회 송년 모임에 현 회장은 물론 전 회장이 참석키는 처음인지라 200여 명 모임은 기록이라 했다.

교가를 부르고, 이승찬 온타리오 현 회장의 개회 인사에 이어서 송순영 현 회장과 이진구 전 회장의 간단한 축하 인사가 있었다.

온타리오 동창회 총 회겸 열린 이 모임에서 약대 한태성(58)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1년 이끌어 나갈 신입 임원들의 인사도 있었다.

신임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회장=한성택(약 58)
- ▶부회장=김학성(농58), 오성규(약70), 임병연(약72), 이영준(공71), 김동호(음76)
- ▶총무=정영진(문리 84)
- ▶재무=김명제(약 73)
- ▶홍보=이현근(문리 86)
- ▶YB 간사=한찬규(농 82)

<사진.기사 양인회>

지역 동창회 소식

뉴욕·필라델피아



뉴욕 동창회

연말 파티 성황리에 치러

15명에 장학금·격려금 지급
이사회는 회장임기 2년으로 개정

이 바람에 회장을 맡아 줄 동문의 인적 자원(?)이 고갈돼 온 것도 사실이다.

<김종을 장학위원·윤병하 사무총장>

###

지난 12월4일 오후 6시 반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 GRAND BALL ROOM에서 총 동창회의 연말파티 행사가 약 200명의 귀빈과 동문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한경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UN대표부 박인국 대사(문리대 동문)가 축사를 해주었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이뤄졌는데 5명의 장학생에게 2천500달러씩을 수여했다. 이 밖에도 10명에게 500달러씩 격려금이 주어져 총 15명에게 1만7천500 달러의 장학금 및 격려금이 지급됐다. 한편 끝낸 클럽 정택수 전 회장에 모교 서울대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의 특별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장학과 격려금

부 01.MIT(Visual Art ▶정상훈(도시공학 04. Harvard(Urban Planning) ▶김현섭(법학부 01. NYU(Philosophy) ▶박무찬(건축과03. Columbia(Architecture) 한편 11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동창회 활성화 방안과 회장의 임기연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고령화 문제는 어느 동창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신세대 영입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현재 단과대학 동창회가 형성되지 않은 대학 출신동문들을 모아 그들의 독자적인 광장을 형성, 활동케 하고 나아가 동창회 운영에도 활력소가 되게하며 앞날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안건으로 회장 임기를 1년



수혜자 중 2천500달러씩의 장학금을 받은 5명은 다음과 같다. ▶조원진(음대 기악과 03, Yale대 School of Music, Clarinet) ▶황소인(디자인학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문제가 거론됐다. 애초 누구에게나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1년으로 정했지만 너무 짧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뉴욕 끝낸 클럽' 이취임식 가져

지난 11월 5일 뉴욕지역 동창회 끝낸클럽이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정택수 전임 회장은 새로 취임하는 이준행 신임 회장(공48입)이 앞으로 이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협조를 다짐했고 이준행 신임

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끝낸클럽은 완갑을 넘긴 동문으로 구성된 모임이며 뉴욕 동창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동창회 리더들의 모임이다. 신임 이준행 회장은 모국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동창회 봉사활동과 후원의 기여로 올해 3월의 모국총



임 회장은 끝낸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과거 10년 동안 이 모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정택수 전회장을 위로하였으며 끝낸클럽 회원 전원의 이름

관악대상(해외부문)을 수상한바 있다. 사진 왼쪽이 정택수 전 회장이며 오른쪽이 신임 이준행 회장으로 신 구 회장 이취임식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청소년 돕기 음악회 성황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손재욱, 사대 77)가 지난 11월 21일 동문 가족과 동포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불우 청소년 돕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필라델피아 콩고 메리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사이언스 센터에서 열린 공연은 두 시간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독창과 중창, 반주부에 첼로를 섞은 접속곡과 장고를 포함한 한국 민요들이 선보였다. 관객들은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하며 음악을 즐겼으며, 공연 마지막 부분

에서는 계속해 앵콜을 외치기도 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인들은 “노래도 잘했고 무엇보다 가을밤에 이런 격조높은 음악회를 준비한 서울대 동창회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을 모았다. 취임자 웬아시안 노인복지원장은 “지난 선거를 통해 우리 카운티 법원 판사에 당선된 게릿 페이지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의 미국인 친구와 함께 찾았다”면서 “이들이 음악에 흠뻑 빠져 즐기는 것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 동문은 “일반 음악회와 다른 점은 개성이 강한 성악가들이 중창과 합창곡을 여러 곡 하는 것을 들으며 전을했고 그 협동심과 동창애를 몸으로 느꼈다”며 “너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날 손재욱 회장은 “이 가을 음악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불우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쓸 계획이다. 이번 음악회는 박해란(지휘), Cranmer씨와 백윤희(반주), 유지연(첼로), 이인영, 심희진, 유미영(이상 소프라노), 김미순, 정주연(이상 메조소프라노), 양인준(테너), 엄경목(바리톤)등이 함께 꾸렸다. <정홍택>

지역 동창회 소식 남가주

남가주 동창회 기금모금 음악회 성황

지난 11월 14일 LA Down Town에 위치한 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Zipper Hall)에서 서울대 남가주 음대 동문회(회장 홍선례)가 주최한 'UCLA 한국음악과 기금모금을 위한 서울대 음악대학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이방은(Cello)·허인영(Piano)·위정민/김유중(Tenor)·김은옥(Soprano)·이종진(Baritone)·Vinwood Trio(사진, 이혜성·오원승·변경주)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동문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했다.

다음은 아크로 취재팀이 Vinwood Trio중 피아노를 맡은 변경주 동문(음대 기악 88)과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 무사히 끝났구나” 하는 안도와 함께 곧바로 허무해잡니

다. 그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에 비해 정말 짧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이죠.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 공연 다음 날부터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지곤 해요. 그것이 한 일주일은 가기도 하죠.”

-제가 공연자라면 무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청중숫자일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중 수보다는 빈 자리가 아주 잘 보이죠. 사실 많이 비어 있으면 꽤 좀 빠지거든요. 하지만 청중에게 없이는 연주자는 최선을 다하죠.”

-평소 어떻게 연습합니까? 바이올린·첼로·피아노 트리오를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걸요. 우선 음악하는 사람 집에는 당연히 피아노가 있어 저의 집에서만 할 이유가 없지요.더욱이 피아니스트는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악기에 적응해야 하구요. 늘 연습



“각자 스케줄도 바쁘니 시간내기가 쉽진 않아요. 저희 트리오 경우 2주에 한번 서로의 집을 돌아가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피아노는 장점도 있겠습니까. 연습장소를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걸요. 우선 음악하는 사람 집에는 당연히 피아노가 있어 저의 집에서만 할 이유가 없지요.더욱이 피아니스트는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악기에 적응해야 하구요. 늘 연습

하는 악기 대신 다른 악기는 소리나 액션 등에 다시 적응해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공연장은 제대로 지어진 음악 홀을 제외하면 좋은 피아노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조울도 안돼 있는 곳이 태반이며 오래되고 낡은 악기라 액션과 소리가 형편없는 곳이 많죠. 하지만 그런 피아노라도 관객들은 좋은 소리를 기대하니까요.”

-동포사회는 공연문화가 열악해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좋은 홀은 대관하기가 까다로운 데다가 무척 비싸구요. 보통의 경우 교회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음향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 좋은 음악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잘 관리된 피아노를 기대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구요.”

-연주 도중 가장 거슬리는 청중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소음내는 분, 졸고 계시는 분, 박수 조금 치는 분 등이죠.객석에선 작은 소음이라 안들리겠지만,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아주 잘 들리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맨 앞줄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나 몸을 자주 움직이고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며 소음내는 일은 연주자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죠.”

-연주 후 박수, 환호 소리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한국분들은 박수에 좀 인색한 거 같아요. 아님 외국인들이 감동을 잘 받는건지... 외국인들의 연주장은 많은 환호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연신 브라보에 휘슬까지. 이어지는 기립박수까지 가끔은 지나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지나칠지라도 연주자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입니다.”

-연주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을 듯 한데요.

“피아노의 경우 일명 '넘순이'라는 보기보다 쉽지는 않은 자리가 있어요. 무엇보다 연주자의 스타일과 연주곡을 잘 이해해야죠. 간혹 악보를 미리 또는 늦게 넘긴다거나 되돌아표를 놓친다든지, 드물게는 두 장을 한꺼번에 넘겨 연주자를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수도 있지요. 현악기 경우 너무 열정적으로 연주하다 활(bow)에 부딪쳐 줄이 끊어지기도 하는데, 오케스트라와 협연 중일 때는 악장의 바이올린을 빌려 연주를 계속하게 되지요. 또 한번은 연주 도중 첼로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연주자 멈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 Acropolistimes >



“메마른 땅에 스미는 불비같은 모임”

Jingle83 동기 가족 45명이 Thanks Giving Day 연휴Warner Springs를 다녀왔다.

Warner Springs의 이미지는 우선 ‘좋은 물과 여유’다. 남가주 온천 볼 중 여기가 가

장 낫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여유’가 뜻하는,구체적 예로 이곳은 최근까지 휴대폰이 터지지 않았다. 밤에 전화도 TV도 없다. 그냥 쉬다 가라는

것.방과 온천시설도 19세기 말 분위기다.이런 곳이 거꾸로 묘하게 ‘여유’를 준다.

11월26일,일행은 South Coast Winery Resort & Spa로 향했다.주변의 와인너리 중 가장 평판이 좋은 곳이다.와이너리 구경도 하고, 와인도 맛봤다. 12달러 짜리 티켓에 5잔이다.

점심후 워너 스프링스에 이르자 일행은 수영복 차림에 탕안으로 들어갔다.

“오네 좋은거!”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온 목소리다.

몇 여성들은 눈치를 보다 결국 슬금슬금 탕에 들어왔다. 이렇게 따뜻하고 나른한데, 체면 가릴 필요도 없겠다. 아들과 함께 온천을 즐기는 동문들이 눈에 띄었다.

저녁 식사 때 차계윤 동문이 준비해온 수육이 끝내줬다. 식사후 이번 여행 히트 게임이 나왔다. 이름 외우기 게임과 삼육구 게임이었는데, 이게 사람잡은 것이다.머리들이 좋아 까먹는 일은 없었는데 문제는 음악적 재능-박자였다. 하나 둘셋넷 박자에 맞춰 셋넷할 때 숫자나 이름을 말해야 하는데,이걸 맞추기 힘들어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일행은 배꼽 잡고 죽도록 웃어댔다.

둘째날 일부는 일찍 골프를 치고, 일부는 하이킹, 또 일부는 승마를 즐겼다.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여유’를 컨셉트로 하는 워너 스프링스의 특징대로 즐겼던 것이다.

하이킹팀은 뿔산을 올랐다. 약 2시간 반 거리니 적당한 높이,적당한 거리였다.

극성동문들은 28일 우중 노천 온천을 즐기고,라면까지 끓여 먹고,집으로 향했다.

지역 동창회 소식

뉴잉글랜드·워싱턴주



뉴잉글랜드 동창회

눈보라 강추위 녹인 동문에 60~08학번 한 마음 연말파티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내리는 굵은 눈발과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연출해낸 바깥 세상의 냉혹함은 세대들 뛰어넘은 동문들 간의 활발한 교제와 진솔한 나눔으로 인해 뿔어져 나온 열기 앞에서 극도로 무력할 수 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New England 각처에 멀리 퍼져 있는 60학번 대선배부터 08학번 새내기까지 다양한 학번 및 학과 출신들이 다 함께 모여 사연깊은 별명들 결집한 자기소개, 미국에서 겪은 황당한 에피소드 나누기, 다같이 노래 부르기, 경품 나누기 등을 통해 화기애애하고 후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서로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세대를 초월하여 나누는 가운데 다같이 하나가 되어갔다.

지난 5일 Acton의 Clubhouse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윤상래) 연말파티 현장의 모습이다.

특히 이날 박찬석 동문과 함께 사회로 나선 양영은 동문은 KBS에서 아나운서로 갈고 닦은 실력을 과시하며 행사가 매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쁨질을 하는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냈다.

뿐만 아니라 장수인 위원장의 지휘 하에 다수의 젊은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세한 항목들까지 쟁겨 준비해낸 뜻깊은 행사가 됐다. 이러한 뜻을 귀하게 산 원로 동문들은 모임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나섰다. 이 모임을 위해 학번 구분 없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박영철·정선

주 동문의 딸인 Jean Park 양이 직접 참여하여 장학금을 기

부했다는 사실이다.

Jean Park 양은 오래 전에 이 동창회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상래 회장은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로써 다른 지부에도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언급하며 Jean Park 양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단체사진 촬영으로 마무리 된

모임의 열기는 차디차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몰랐고 상당수의 동문들이 땀을 흘리며 깊은 밤까지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다.

아름다운 에필로그

“I am writing to let you know that I am making a donation to SNU Alumni Association scholarship fund, in honor of my parents. I received the scholarship in the past when I was in school, and it made a difference to help me achieve everything that I've accomplished thus far. I know my parents are proud to be part of the SNU Alumni Association and appreciate all the organizing and effort you put into it. I hope the donation can go to help another young student to achieve his or her dreams.”

위의 글과 함께 MS Jean Park 이 보내온 1천 달러 장학금 성금은 마치 앙상한 나무가지에 봄 잎이 돋아나듯 동창회의 앞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듯 하다. 동창회가 장학행사를 시작하지 12 년만에 처음 받은 이 성금은 동문들의 참여가 줄

어가는 동창회의 현실정의 장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초창기부터 우리 2세의 참여를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자금 부족으로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 동창회도 이역만 한 구석에서 존재하는 유명무실의 모임인 스티그마를 떨쳐 버리고 우리 2 세를 포용할수 있는 자신감과 모교의 세계화 운동에 적극 참여, 뚜렷한 명분과 참여의 구실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돼야만 한다고 믿는다.

Jean Park은 박영철(농생물과 64 입)·정선주(간 68 입) 동문의 둘째 딸로 Harvard, Wharton School of Business (MBA)를 거쳐 현재는 보스턴 소재 Fidelity investment co's equity analyst로 근무 중이다. 가족은 남편 Jake (Harvard PhD in Physics)와 9 개월된 딸이 있으며 Lexington 에 살고 있다.

동문 소식이나 행사 안내를 원하는 동문은 이재형 사무총장 (857-998-7043, yijh00@alum.mit.edu)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

<윤상래·뉴잉글랜드 동창회장>



워싱턴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열어 감사패·공로상 등 시상식도

송년모임이 12월 12일 예년과 같은 장소인 Inglewood Golf Club에서 열렸다.

60여 명이 참석한 금년 총회는 신입회원 소개를 시작으로 분과별 2009년 사업보고, Senior Club·등산회·골프회·문화회·봉사회(무료진료, 암을 이긴 사람들 모임)·SNU Band·동문여행계 모임 활동보고와 회계 및 감사 보고로 진행됐다.

이어, 자문위원회의 신임회장·부회장·감사의 추천이 있었으며, 신창범(법대 73) 회장·이승택(수의대 75) 부회장·김인배(수의대 59) 감사를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총회 마지막 순서로 김재훈 회장이 금년 한 해 동안 동문회를 위해 공헌하신 임원과 동문들에게 공로상과 감사패를 증정하고 고별인사를 했다.

Christmas 송년 party는 Mini음 악회를 시작으로 송진화(음대 79) 동문의 Flute 독주와 황시선(양종호 동문부인)씨의 독창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작년에 이어 Encore공연을 하는 SNU Band가 추억의 팝송 연주로 그간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참석 동문들을 즐겁게 했다.

이어, 이 날의 행운을 가리는 행운상 추첨으로 동문들께 푸짐한 상품을 나누어드렸다.

그 중간에 Mrs. 김재훈과 Mrs. 임현민씨의 눈부신 활약으로 연달 불우 이웃돕기 및 지역사회 성금으로 3천200달러 정도를 모금하였다.

마지막 Karaoke 순서에서 애창곡으로 실력을 발휘한 모든 동문들께서 상품을 받았다.

올해에도 역시 김무웅(음대 64) 동문 부부께서 향수를 열창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새롭게 오혜성(농대 61)·허영(수의대 72)·하주홍(경연대 77) 동문, 이원섭(농대 77) 동문 부인 등 명가수들을 발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원섭 동문의 영성 한 Back Dancing과 우영덕(공대 62)선배의 파헤기 코코춤은 압권이었다.

흥겨운 Party는 예정된 장소 예약 시간을 30분이나 넘긴 10시 반에 마치고 그 때까지 남은 참석자 전원의 기념사진 촬영으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다.

행사가 끝난 후 15명 정도가 이원섭(농대 77) 동문대에서 모여 와인파 늦은 간식으로 새벽 2시30분까지 뒤풀이 행사를 했다. 이원섭 동문 부부께 감사하는 바이다.

이 날 감사패및 공로상을 받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감사패= UniBank 은행장 이창열(상대 67)

▶특별공로상= 장석주·이희배·김인배(Senior Club)·윤태근·맹병규·유성열·신창범(SNU Band)·변재준·신창범·정효순(무료 의료 진료봉사)

▶공로상= 이석주(골프회)·이승택(등산회)·신창범·임현민·이승·최두환(임원)

<김재훈 워싱턴 지역 동창회장>

<고침> 지난 11월호 16면 워싱턴DC 지역 동창회 소식중 '제25대 회장단'은 '제30대 회장단'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고국동문 동정

수상·인사·행사

수상

▲李吉女(의학51 - 57 가천길재단 회장·경원대 총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27일 (사)청권사로 부터 제12회 효령상(사회봉사부문) 수상.



▲柳俊馨(법학51 - 66 前함경남도지사)=지난 10월 11일 이북도민 권익신장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咸泰堉(건축52 - 56 장은공의재단 이사장)=지난 11월 11일 제10회 부품소재 기술상 시상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閔丙天(정치52 - 56 북한연구소 이사장)=지난 11월 27일 통일문화연구원으로 부터 제5회 통일문화대상 수상.

▲李蘭映(사학53 - 57 前국립경주박물관장)=지난 11월 2일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식에서 보관 문화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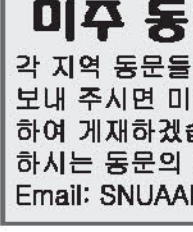


▲金后蘭(가정교육53입문학의집서울이사장)=지난 11월 16일 현대시박물관에 제정한 제1회 '님시인상' 수상.



▲韓完相(사회55 - 60 前대한적십자사총재)=지난 11월 16일 미국에모리대로부터 '명예로운해의동창상' 수상.

▲金德龍(사회61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지난 11월 27일 대한무궁화중앙회로부터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대상(정치부문) 수상.



▲李仁(항공공학68 - 72 KAIST교수)=지난 11월 12일 한국항공우주학회·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으로 제정한 항공우주공로상(우주부문) 수상.

▲愼昌宰(의학72 - 78 교보생명보험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10일 싱가포르 판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보험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시아 최고 생명보험회사상' 수상.

▲洪錫珪(의학75 - 79 보광그룹 회장·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회장)=지난 11월 3일 제23회 한국광고대회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禹亨權(사회교육75 - 79 금오공대 총장)=지난 11월 9일 몽골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친선훈장' 수훈.

▲趙錫來(AMP 11기 효성그룹 회장·한일경제협회장)=지난 11월 5일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旭日大綬章 수훈.

▲朴成得(ACAD 20기 前정보통신부 차관·한국해킹보안협회장)=지난 11월 12일 신산업경영원이 주최한 제21회 뉴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정보통신인'상 수상.

▲이덕수(ACAD 44기 타임즈코리아 회장)=지난 11월 18일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영어신문(틴타임즈, 키즈타임즈, 킨더타임즈) 읽기와 영어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장 수상.

▲金演表(의학51 - 58 산림임업사랑시민연합회장)=지난 11월 19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국임업회관 건립추진위원회장에 선출.

▲金演表(의학51 - 58 산림임업사랑시민연합회장)=지난 11월 19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국임업회관 건립추진위원회장에 선출.

▲李惠星(국어교육58 - 62 이화여대 명예교수)=내년 2월에 개교하는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총장에 취임.

▲安國正(사학63 - 70 모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9일 동아일보 방송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에 선임.

▲李錫采(경영64 - 68 KT 회장)=지난 11월 9일 임기 3년의 제2대 한국경제교육협회(KFEA) 회장에 선임.

▲柳佑益(지리67 - 71 前대통령실장·모교 지리학과 교수·세계지리학회 협회 사무총장)=지난 11월 13일 주중 대사에 임명.

▲金仁圭(정치69 - 73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24일 임기 3년의 제19대 KBS 사장에 취임.

▲申相完(치의학71 - 77 고려대교수)=최근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국제치과보철학회(ICP) 총회에서 임기 2년의 공동회장에 선출.

▲吳在寅(경영76 - 80 단국대교수)=최근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수석부회장 겸 차차기(2011년) 회장에 선출.

▲權彛赫(의학41 - 47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본회 교문)=지난 11월 24일 서울 논현동 컨벤션 해리츠타워에서 북한결핵어린이를 돕기 위한 제2회 생명 나눔의 밤 행사 개최.

▲權彛赫(의학41 - 47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본회 교문)=지난 11월 24일 서울 논현동 컨벤션 해리츠타워에서 북한결핵어린이를 돕기 위한 제2회 생명 나눔의 밤 행사 개최.

▲李御寧(국문52 - 56 중앙일보교문)=지난 11월 27일 서울 국립극장(하늘극장)에서 50년 기념 '만남 50년' 행사 개최.

▲李鍾協(기악62 - 66 중앙대 명예교수·협스트링앙상블 음악감독)=지난 12월 12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협스트링앙상블과 함께 하는 영아티스트 콘서트 개최.

▲金東鎭(기악63 - 67 前경원대 교수·클라리네스트)=지난 12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郭貞善(기악90 - 94 바순)·李倫定(기악90 - 94 오보에)·金弘博(기악00 - 04 호른) 등문 등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앙상블 연주회 개최.

▲李建鏞(작곡65 - 74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2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白勝寓(작곡82 - 86)·文晟準(작곡86 - 91)·李龍株(작곡86 - 92)·鄭承宰(작곡88 - 94) 등문 등과 함께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개최.

▲權彛傑(응용미술69 - 76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지난 11월 20일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혁신' 주제로 강연.

▲安東晚(건축69 - 73 모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인공지능대학원 학장)=지난 10월 2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인공지능' 국제세미나 개최.

▲安炳燦(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6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공영방송정체를 해부하다'를 주제로 제

28차 언론인권포럼 개최.

▲鄭道彦(의학70 - 76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최근 신간 '프로이트의 의자 - 숨겨진 나와 마주하는 정신분석 이야기'(웅진 지식하우스刊) 출간.

▲姜起敎(역사교육73 - 77 강원도 행정부지사·강원도립예술단장)=지난 11월 3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전통과 창조, 세계로의 울림'을 주제로 강원도립예술단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 - 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아시아기자협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G20 시대의 녹색성장 - 현재와 미래' 및 '미디어와 테러리즘'을 주제로 아시아기자협회 포럼 개최.

▲朴寅星(한대원83 - 85 중국浙江大 교수)=지난 11월 13일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정리한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속' 출간.

▲김범기(작곡93 - 98 작곡가)=지난 12월 4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음악극 '성난 기계'를 주제로 작곡 발표회 개최.

▲서수민(기악97 - 01 앙상블 에클라 단원)=지난 12월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올라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 - 02 카메라타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미주 동문 동정란 투고·제보 요청

각 지역 동문들의 수상, 승진, 행사, 가정의 경조사 등 소식을 보내 주시면 미주 동향회보에 미주 동문들의 동정란을 신설하여 게재하겠습니다. 소식을 보내실 때는 사진과 함께 제보하시는 동문의 신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Email: SNUAAHQ@Gmail.com

명복을 빕니다

▲李誠載(작곡48 - 51 모교 명예교수)=11월 29일 별세(85세)
▲崔一善(수학교육58졸 범한택시 회장)=11월 17일 별세(77세)
▲文泰哲(경제58 - 62 前진주MBC 상무)=11월 6일 별세(70세)
▲許永燮(금속공학60 - 64 녹십자 회장)=11월 15일 별세(68세)
▲延元泳(경영67 - 71 前자산관리공사 사장)=11월 22일 별세(61세)
▲許銘(생물교육73 - 77 이화여대 교수)=11월 23일 별세(54세)

동창회비-우원금-광고비 남부 연왕

이 명단은 2009년 7월 1일 미주 동창회 10대 회장단이 출범한 이후 2009년 12월 19일까지 시카고 본부의 영수 기록입니다. 전임 회장단(뉴욕)에 납부한 기록은 이 지면에 게재되지 않습니다.

특별 후원금

송순영 (문리대 52입)	30,300
시카고 팔튼클럽	1,000
아시아나 항공	2,000
허지영 (문리대 66입)	1,000
정창희	100
본국동창회지원금	
시카고동창회	1,000
미네소타 지부	800

평의원 회비

2008~2009	
역대 회장: 이용락 (6대 회장)	
종신이사: 서영석·오홍조·서치원·조용원	
평의원:	
김창수·박평일·이영우·박연희·박숙·김정주·조대현·이정재·박홍우·김지영·김동석·방석훈·김은종·정임현·지인수·김재영·성주경·이영현·신정현·하상원·남세현·한경수·윤영하·김난기·최인갑·김재훈·이승찬·김학성·배규영	
2009~2010	
이석호 (공대 66입)	100
이장우 (문리대 72입)	100
계	\$3,600

종신 이사회비

뉴욕에 영수기는 본 지면에 게재되지 않음

조용원 (문리대 66입)	1,500
---------------	-------

관악 후원회비

AZ 지영환 200 박양세 (약대 48입) 200	FL 전웅상 (공대 46입) 200	조대현(공대 57입) 200 진관보(의대 72입) 200 최희수, 이순자 200 한재은(의대 59입) 500	정준영 (문리 67입) 100 최휘웅 200 허선행 이정림 (상대 65 입) 200	PA 김국간 김주진 (법대 54입) 200 서중민 200 손재욱 200 이지훈 (공대 60) 200 정정수 (의대 56입) 200
CA 권대원 (대학원 59) 200 권영조 (의대 57입) 300 김낙구 25 김동산 200 김동석 200 김영석 200 김종표 200 나정자(간호대70) 200 박종수 ∞ 150 염동해 (농대74) 1,000 유의영 1,000 유재환(상대 67) 200 이병준 (의대 57) 1,000 이승훈 (치대 86입) 200 임낙균 (약대 64입) 300 임용오 (의대 57입)3,000 임춘수(의대 57) 400 장 준 200 장진성 200 전호선 225 정원훈 200 조재길 200 현원영 400 황만익 200 박국중 200 이병무 200 이화숙 200 전희택(의대 59입) 200 최용완 (공대57) 200	GA 김용진 200 문종현 25 IL 이용락(공대 49입) 1,000 김윤태 (의대 63입) ,000 임현제/최경화(의대) 600 조중행/박숙(의대) 1,000 박국중 200 박승원 (공대 50입) 500 이병무(사대 59입) 200 김길중 (의대59입) 200 김태기(의대 62입) 100 강창만 (의대 58입) 400 구경희 (의대 59입) ,000 김영호 (의대 71입) 200 김윤범 (의대 52입) 200 김재환 (사대 72입) 200 김정주 (문 60입) 200 노영일·지예자(의) 200 박영규 (농대 57입) 200 반용균 (의대 53입) 200 서상현 (의대 65입) 125 양홍미 (약대 63입) 200 윤효정(사대) 25 이광선(의대 59입) 200 이승자(사대 60입) 200 이윤모(농대 57입) 200 장기남·김승주 200 정승규(공대 60입) 200	N 김연화 225 MA 김제호 100 MD 강길중 (약대 70입) 200 권철수 200 김창호 25 이태영 200 이항열 25 이희규 200 전경철 (공대 55입)200 MI 유효명 25 차대양 200 MN 김태환 (문 60입) 200 왕규현 200 NJ 권문용 (미대 61) 200 기도석 200 박경원 200 박승원 500 신정윤 (공대 60입) 200 윤갑석 (상대 83 입) 200	NY 권영국 (상대 60입) 200 김명승 (상대 65입) 200 권영대 200 김영배 200 김승호 (공대72) 200 김용연 200 김용재 (의대60) 200 김창수 (약대 64 입) 200 박윤수 (문리 59) 200 박준희 (인문대 86) 200 성기호 200 이근수 25 이준행(공대48입) 1,000 최구진 200 최한용 (농대 59입) 200 최형무 200 OH 김봉희 (공대69) 200 김윤성 (의대 63) 200 최인갑 (공대 57) 200 OK 김경숙 (생활과대 75) 200 이상장 (의대 73입) 200 OR 김상순 300	WA 김성열 (치대 61입) 200 WI 김영화 (문리 66입) 200

광고비/등문 업소록 대금

CA 김광철 (약대 65 입) 120 신대식 (상대 60 입) 120 조홍준 (상대 65) 120 장 준 (인문대 85) 120 최준호 (치대 58) 120 정복근 (사대 69) 120 강동순 (법대 59) 200 김종표 (법대 58) 300 손학식 (공대 61) 120 김정무 (공대 69) 120 김광현 (상대 69) 120 김규정 (사대 77) 120 김대우 (치대 62) 120 김원철 (농대 70) 200 김재영 (농대 62) 120 김종표 (법대 58) 300 김한신 () 류 원 (대학원 74) 문덕수 (공대 73) 120	박준창 (인문대 79) 120 손학식 (공대 61) 120 신정식 (상대 64) 120 신혜원 (사대 81) 120 옥유진 (공대 64) 120 윤경민 (법대 55) 120 이강원 (인문대 76) 120 이정희 (인문대 83) 200 이근설 (상대 58) 200 이명일 (약대 72) 120 장 준 (인문대 85) 120 정광진 (농대 76) 정지선 (상대 58) 300 조홍준 (상대 65) 120 차기민 (공대 85) 120 최송규 (법대 62) 120 최중환 (치대 70) 120 한태호 (인문대 75) 120 한재복 (인문대 82) 120 이정희 (문리대579) 200 김원철 (농대) 200	이근설 (상대 569) 200 박준창 (인문대 79) 120 신혜원 (사대 81) 120 김정무 (공대 69) 120 이준배 (사대 609) 120 서동영 (사대 609) 120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120 DE 최 환 (공대 68) 120 GA 김만복 (문리 72) 120 IL 이춘우 (치대 54 입) 120 김재환 (사대 72) 2,500 김영호 (의대 71) 120 김현숙 (간호 79) 120 심삼구 (상대 63) 120	이재희 (치대 68) 120 NJ 김세환 (공대65입) 120 이정림 (상대 66 입) 120 오영식 (법대 72) 120 김세환 (공대 65) 120 손승덕 (미대 77) 200 오영식 (법대 72) 120 우상영 (상대 55) 120 NY 김광호 (문리대 62) 300 김영배 (미대 입) 120 김영희 (법대 80) 120 김창수 (약대 64입) 120 조대영 (공대 62입) 120 한영수 (의대 62입) 120 김명승 (상대 65) 120 김영희 (법대 80) 120	김용학 (법대 70) 120 문주한 (경대원 88) 120 이근수 (상대 64) 120 윤병하 (농대 80) 200 정영희 (사대62) 200 조제석 (문리 68) 120 최형무 (법대 69) 120 PA 김국간 (치대64) 120 김종규 (치대 63) 120 권철수 (의대 68) 120 류용진 (상대 59) 120 허창기 (약대 67) 200 OR 김상순 120 TX	이윤성 (수의대 81) 200 유소양 (수의 61) 200 이윤성 (수의 81) 200 조시호 (문리대 59) 300 VA 박상근 (법대 75) 150 이규섭 (상대 68) 200 한인섭 (문리 55) 200 WA 김성열 (치대 61) 200 유성열 (공대 72) 200
--	--	--	--	---	---

미주 동문 14.9%가 회비 및 기금 협조를 하셨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2009년 8월에 6,293세대의 동문들에게 회비 및 기금 협조 서신을 발송했으며 12월 20일 현재 741명(11.3%) 동문들이 회비를 납부했으며 광고비와 기타 후원금을 합쳐 14.9% (940명)의 동문들이 협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회비 명목에는 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를 협조한 각주별 통계를 게재합니다. 회비를 낸 동문이 없는 주는 회비 납부자 명단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회원 25명 미만인 경우 %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비 및 업소록 광고비 납부자 현황

2010 회계년 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1년분 \$75 납부하신 분은

AK (4명중 1명)
윤제중 (농대 55입)

AZ (39명중 4명)
김영철 (공대 55입)
지영환 (의대 61입)
신태성 (공대 71입)
박양세 (약대 48입)

CA (21,58명중 10.8%)

강길용 (공대 46입)
강신호 (사대 49입)
강정훈 (미대 56입)
강중경 (공대 48입)
강천호 (사대 58입)
강희창 (공대 57입)
고영철 (의대 45입)
구혜선 (미대 81입)
권길상 (음대 44입)
권대원 (경영대원 59입)
권영달 (문리대 52입)
권영태 (의대 57입)
권영조 (의대 66입)
김 훈 (의대 65입)
김경신 (사대 70입)
김계윤 (의대 57입)
김광은 (음대 56입)
김광철 (사대 47입)
김교복 (농대 63입)
김근민 (법대 56입)
김나구 (상대 67입)
김동산 (법대 59입)
김동석 (음대 64입)
김명자 (문리대 62입)
김병호 (문리대 61입)
김병호 (상대 57입)
김석중 (법대 54입)
김영기 (의대 58입)
김영덕 (공대 51입)
김영배 (공대 73입)
김영석 (의대 58입)
김영준 (수의대)
김영한 (법대 54입)
김영희 (생활과학대 69)
김용재 (음대)
김원정 (의대 49입)
김유갑 (의대 49입)
김은희 ()
김익창 (의대 51입)
김일영 (약대)
김재무 (상대 58입)
김정복 (사대 55입)
김정빈 (간호대 69입)
김정화 (미대 63입)
김종일 (법대 58입)
김종표 (의대 45입)
김진호 (약대 64입)
김창무 (음대 53입)
김태웅 (의대 61입)
김태윤 (법대 53입)
김현호 (문리대 59입)
김희재 (사대 66입)
나두섭 (의대 66입)
남장우 (사대 56입)
노명호 (의대 74입)
노상규 (공대 60입)
노재민 (법대 51입)
문병하 (공대 51입)
문인일 (약대 68입)
민병완 (공대 65입)
민영기 (법대 57입)
박 현 (상대)

박동훈 (의대 58입)
박성민 (의대 58입)
박영옥 (상대 77입)
박원준 (공대 53입)
박제인 (약대 60입)
박종수 (공대 60입)
박종수 (문리 60)
박종식 (의대 48입)
박진득 (농대 67입)
박찬호 (자연대 81입)
박창선 (공대 55입)
박취서 (약대 60입)
박태호 (치대 66입)
박형철 (사대 72)
방명진 (공대 73입)
백성용 (사대 52입)
박종성 (법대 53입)
부영무 (치대 72입)
서승열 (공대 59입)
서치원 (공대 69입)
선우원근 (공대 66)
성락호 (치대 65입)
손남수 (미대)
손학식 (공대 61)
송은섭 (치대 70입)
송준섭 (농대 65입)
송원표 (수의대 73입)
신광재 (공대 73입)
신대식 () 52입)
신동국 (수의대 76입)
신영규 (의대 57입)
신영수 (치대 64입)
신용규 (의대 57입)
신우천 (치대 67입)
신정연 (미대 61입)
신희정 (미대)
안병일 (의대 63입)
안현중 (음대 56입)
양광주 (대학원 58입)
양승분 (공대 65입)
양은석 (음대 70입)
양창호 (상대 54입)
양태준 (상대 56입)
염동해 (농대 74입)
오병주 (간호대 77입)
오양숙 (간호대 60입)
오찬수 (약대 57입)
우옥자 (간호대 60입)
유석홍 (상대 61입)
유의영 (문리대 58입)
유재환 (상대 67입)
유현순 (상대 60입)
윤석철 (상대 83입)
윤장희 (상대)
유진형 (의대 58입)
윤홍기 (의대 42입)
이강원 (공대 66입)
이경수 (수의대 73입)
이근철 (상대 56입)
이근호 (공대 46입)
이기재 (사대 52입)
이기준 (법대 54입)
이길자 (음대 57입)
이난정 (사대 36입)
이동철 (사대 36입)
이명규 (의대 60입)
이명희 (법대 57입)
이병무 (법대 57입)
이상문 (의대 52입)
이상웅 (음대 58입)
이승훈 (공대 66입)
이양구 (상대 57입)
이영숙 (치대 65입)
이영식 (농대 58입)
이영신 (간호대 77입)

이우근 (음대 46입)
이은희 (음대 65입)
이재룡 (공대 71입)
이정옥 (생과대 71입)
이종표 (간호대 69입)
이준석 (의대 61입)
이준호 (공대 81입)
이중열 (공대 69입)
이혜영 ()
이혜란 ()
이화숙 ()
임동호 () 55)
임승재 (문리대 66)
임용오 (의대 57입)
임정란 (음대 76입)
임진호 (치대 68)
임춘수 (의대 57)
임희영 (치대 69입)
장 준 (인문대 85입)
장경구 (미대 67입)
장기창 (공대 56입)
장동석 (문리대 66입)
장진성 (약대 66입)
전낙관 (사대 60입)
전병원 (공대 54입)
전호선 (수의대 67입)
전화자 (음대 60입)
정규남 (공대 52입)
정동구 (공대 57입)
정동석 (공대 57입)
정두호 (공대 64입)
정복근 (사대 69입)
정수만 (의대 66입)
정원준 (상대 38입)
정인덕 (보건대학원 64)
정인환 (법대 54입)
정재형 (약대 55입)
정진수 (공대 56입)
정창희 ()
정현진 (법대 63입)
정 화 () 64입)
제영혜 (가정대 71)
조상하 (치대 64입)
조재길 (사대 61입)
조종웅 ()
조태묵 () 60입)
조태준 (문리대 59)
주수봉 (공대 67입)
진희섭 (문리대 50입)
차기민 (공대 85입)
채희원 ()
최경복 (간호대 69입)
최경자 (음대 61입)
최덕순 (간호대 59입)
최승륜 (상대 53입)
최영순 (간호대 69입)
최용완 (공대 57입)
최왕옥 (공대 69입)
최인용 (문리대 65입)
최중환 ()
최대근 () 48입)
최홍수 (자과대 87입)
하기환 (공대 66입)
하상원 (대학원 90입)
한중철 ()
홍병익 (공대 68입)
황동하 (의대 65입)
황단익 (사대 59입)
황정식 ()
구무옥 (문리 55입)
김광한 ()
김수백 () 49입)
김준일 (공대 62입)
민병근 ()
박정화 (문리 46입)
윤용길 (공대 55입)
이정열 (농대 41입)

이종걸 (상대 53입)
이채진 (문리 55입)
전희택 (의대 58입)
최복영 (사대 56입)
탁혜숙 (의대 67입)
한태호 (인문대 75입)
현원영 ()
허영진 (문리 61입)
황석우 (의대 53입)

CO (43명중 2.3%)
정화용 (사대 61입)

CT (46명중 2.2%)
김기훈 (상대 52입)
김내도 (공대 62입)
김재동 (인문대 70입)

DE (9명중 1명)
이재성 (공대 70입)

FL (72명중 18.2%)
신쌍재 (수의대 59입)
안창현 ()
양찬기 (의대 57입)
이중오 (의대 58입)
전웅상 (공대 46입)
한기빈 (공대 52입)
한성수 ()
한용현 ()
문상규 () 56입)
엄무광 (문리 60입)
오석일 ()
윤홍철 () 56)
황현상 () 55입)

GA (108명중 9.3%)
김영서 (상대 54입)
김용진 (문리 48입)
김중구 (수의대 73)
문종현 ()
박천기 () 56입)
안승덕 () 51입)
오경호 () 60입)
정경근 () 59입)
정인태 () 58입)
임한웅 () 60)
임수암 () 62)
주중광 () 60입)
최종진 () 63입)
허지영 () 66)

HI (50명중 4.0%)
림양수 ()
윤상철 ()

IL (396명중 19.2%)
강영국 () 67입)
강창만 () 58입)
계훈택 () 55입)
고병철 () 55입)
구경희 () 59입)
김갑중 () 57입)
김선철 () 58입)
김영호 () 71입)
김용성 () 54입)
김용우 () 58입)
김용주 () 73입)
김윤범 () 54입)
김정주 () 60입)
김현주 () 61입)
문탁영 () 55입)
박 숙 () 64입)
박영규 () 57입)

박인숙 () 69입)
반용균 () 53입)
배영섭 () 54입)
송재현 () 46입)
신석균 () 54)
양승표 () 57입)
양홍미 () 63입)
오명자 () 60입)
윤효정 ()
김광철 () 47)
전현일 () 62)
정영숙 () 59)
임이섭 () 54)
김길중 () 59)
김일훈 () 51)
이광선 () 58입)
이덕수 () 58입)
이명희 () 52입)
이승자 () 60입)
이윤모 () 57입)
이정일 () 57입)
이진주 () 55입)
이춘우 () 54입)
임이섭 () 54입)
장기남 () 62입)
장윤일 () 60입)
장은숙 () 53입)
정광훈 () 60입)
정승규 () 60입)
정지희 () 59입)
조 철 () 49입)
조대현 () 57입)
조중행 () 63입)
진관보 () 72입)
진보린 () 56입)
최길용 () 57입)
최순분 () 57입)
최순용 () 61입)
최애옥 () 47입)
최호승 () 58입)
최희수 () 67입)
한의일 () 62입)
한성택 () 55입)
곽영로 () 72입)
이용락 () 48입)
장시환 () 58입)
김재환 ()
노영일 () 54입)
지예자 () 62입)
최혜숙 ()
이소희 () 61입)
임현재 () 59입)
전현일 () 62입)
정 호 () 62입)
최희필 () 53입)
이동균 () 75입)
김용성 () 54입)

윤은상 () 66입)
이재용 () 93입)
이희규 () 69입)
윤상래 () 62)
도은희 () 61)
민길우 () 61)
이금하 () 69)
강창욱 () 55입)
강길종 () 69입)
공순옥 () 66)
권철수 () 68입)
김창호 () 56입)
남옥현 () 84입)
노광옥 () 83입)
노상철 () 63입)
박명영 () 66입)
박찬호 () 67입)
소수영 () 64입)
송병준 () 68입)
신구용 () 59입)
신상규 () 52입)
오인환 () 67입)
오혜현 () 55입)
이유세 () 72입)
이재승 () 55입)
이준영 () 74입)
이태영 () 60입)
이항열 () 57입)
임종식 () 57입)
임필순 () 54입)
전정철 () 55입)
정요셉 () 70입)
조세진 () 65입)

ME (3명중 1명)
채도경 () 59입)

MI (88명중 23.9%)
권순관 () 60입)
김용호 () 60입)
김우신 () 60입)
김원정 () 69입)
김정일 () 57입)
남상용 () 52입)
유효명 () 52입)
육태식 () 61입)
이상일 () 54입)
이현중 () 59입)
장 철 () 65입)
장병호 () 66입)
조병권 () 64입)
차대양 () 55입)
채무원 () 59입)
최공창 () 55입)
하계현 () 64입)
이민우 () 61입)
이종기 () 55입)

IN (27명중 18.5%)
김정숙 () 51입)
송순영 ()
이종일 () 54입)
임영신 () 54입)
김연화 ()

KS (19명중 1명)
임하진 () 79입)

LA (3명중 1명)
강영민 () 58)

MA (159명중 7.5%)
김병국 () 71입)
김은한 () 60입)
김제호 () 56입)
박기순 () 70입)
박종건 () 58입)

윤은상 () 66입)
이재용 () 93입)
이희규 () 69입)
윤상래 () 62)
도은희 () 61)
민길우 () 61)
이금하 () 69)
강창욱 () 55입)
강길종 () 69입)
공순옥 () 66)
권철수 () 68입)
김창호 () 56입)
남옥현 () 84입)
노광옥 () 83입)
노상철 () 63입)
박명영 () 66입)
박찬호 () 67입)
소수영 () 64입)
송병준 () 68입)
신구용 () 59입)
신상규 () 52입)
오인환 () 67입)
오혜현 () 55입)
이유세 () 72입)
이재승 () 55입)
이준영 () 74입)
이태영 () 60입)
이항열 () 57입)
임종식 () 57입)
임필순 () 54입)
전정철 () 55입)
정요셉 () 70입)
조세진 () 65입)

MD (306명중 8.8%)

강창욱 () 55입)
강길종 () 69입)
공순옥 () 66)
권철수 () 68입)
김창호 () 56입)
남옥현 () 84입)
노광옥 () 83입)
노상철 () 63입)
박명영 () 66입)
박찬호 () 67입)
소수영 () 64입)
송병준 () 68입)
신구용 () 59입)
신상규 () 52입)
오인환 () 67입)
오혜현 () 55입)
이유세 () 72입)
이재승 () 55입)
이준영 () 74입)
이태영 () 60입)
이항열 () 57입)
임종식 () 57입)
임필순 () 54입)
전정철 () 55입)
정요셉 () 70입)
조세진 () 65입)

ME (3명중 1명)
채도경 () 59입)

MI (88명중 23.9%)
권순관 () 60입)
김용호 () 60입)
김우신 () 60입)
김원정 () 69입)
김정일 () 57입)
남상용 () 52입)
유효명 () 52입)
육태식 () 61입)
이상일 () 54입)
이현중 () 59입)
장 철 () 65입)
장병호 () 66입)
조병권 () 64입)
차대양 () 55입)
채무원 () 59입)
최공창 () 55입)
하계현 () 64입)
이민우 () 61입)
이종기 () 55입)

MN (85명중 12.9%)

김태환 () 58입)
권학주 () 59입)
남세현 () 67입)
변우진 () 81입)
성옥진 () 87입)
송창원 () 53입)
왕규현 () 56입)
주현수 () 62입)
권학주 () 59)
김권식 () 61입)

MS (2명중 1명)
김진호 () 60입)

NC (42명중 14.3%)

정길표 () 49입)
조동원 () 49입)
홍 훈 () 75입)
최종진 () 63)

NE (6명중 2명)
이상문 ()
김명자 () 55입)

NJ (830명중 9.2%)

강석권 () 61입)
고영수 () 57입)
곽상준 () 55입)
곽선철 () 61입)
권문용 () 61)
기도석 () 67입)
김경애 () 55)
김규화 () 63입)
김대연 () 59입)
김동건 () 71입)
김명철 () 60입)
김봉희 () 69입)
김세환 () 65입)
김양호 () 51입)
김영애 () 56입)
김영일 () 58)
김영진 () 50)
김영진 () 67입)
김옥현 () 59입)
김영철 () 51)
김은섭 () 53입)
김중석 () 55)
김한중 () 56입)
김훈일 () 60입)
박정원 () 66입)
박대규 () 55입)
박성호 () 57입)
박성일 () 58입)
박은규 () 72입)
박익수 () 52입)
박태호 () 66입)
배명애 () 47입)
서정용 () 63입)
송광호 () 59입)
송기인 () 60입)
오홍호 () 66입)
유호근 () 71입)
윤갑석 () 53입)
윤순철 () 44입)
윤준식 () 58입)
이정림 () 64입)
이능석 () 57입)
이유찬 () 58입)
이분희 () 54)
이재원 () 52입)
이종석 () 54입)
정순기 () 69입)
정준영 () 68입)
주선후 () 43입)
최원로 () 58입)
최희우 () 61입)
추재욱 () 57입)
탁명양 () 52입)
허선행 () 58입)
현진섭 () 55입)
한인철 () 61입)
홍사민 () 61입)

NV (19명중 2명)
이 판 () 55입)
최영식 () 59입)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10 회계년 회비(회보 구독료 포함) 1년분 \$75 납부하신 분

[전 페이지에서 계속]

NY (778명중 7.7%)

강영선 (공대 50 입)
계동희 (치대 67 입)
박승용 (의대 65 입)
권영대 (공대 69 입)
김동진 (약대 56)
김승호 (공대 71 입)
권영국 (상대 60 입)
김명승 (상대 66 입)
김문경 (약대 61 입)
김석식 (의대 58 입)
김석자 (음대 61 입)
김성진 (공대 56 입)
김영배 (공대 78 입)
김용술 (상대 56 입)
김용연 (문리대 63 입)
김우영 (상대 60 입)
김종윤 (사대 51)
김창수 (약대 64 입)
김학수 (상대 65)
김해안 (의대 53 입)
김현중 (공대 63)
노용면 (의대 49 입)
라홍채 (의대 60 입)
민발식 (의대 59 입)
박수안 (의대 59 입)
박순영 (법대 56 입)
박윤수 (문리대 48)
박정식 (사대 59 입)
박현성 (약대 60 입)
배상규 (약대 61 입)
서정애 (음대 67 입)
서상철 (의대 49 입)
성기호 (약대 57 입)
송영순 & 유영호 입

신남철 (상대 62 입)
안재현 (의대 61 입)
양거영 (의대 61 입)
양금자 (미대 69 입)
양세관 (정영대 66 입)
오인환 (문리대 63 입)
유광현 (의대 58 입)
유진일 (의대 60)
유제철 (공대 65 입)
윤병하 (농대 80 입)
윤영섭 (의대 57 입)
정자 (간호대 63 입)
윤정옥 (약대 50 입)
이근수 (상대 64 입)
이대연 (약대 65 입)
이대영 (문리대 64 입)
이병무 (법대 57 입)
이성구 (약대)
이성수 (공대 56 입)
이영애 (치대 52 입)
이영애 (농대 59 입)
이정은 (의대 58 입)
이주경 (상대 68 입)
이준행 (약대 61 입)
이해청 (약대 61 입)
이현호 (공대 58 입)
이희자 (간호대 70 입)
임건식 (음대 52 입)
임공세 (의대 61 입)
임대복 (의대 58 입)
장기선 (약대 61 입)
장영식 (법대 59 입)
전병산 (약대 61 입)
정인식 (상대 58 입)
정진선 (간호대 82 입)
정택수 (문리대 46 입)

조남천 (사대 59 입)
조대영 (공대 61 입)
조숙자 (간호대 87 입)
조환환 (치대 65 입)
차국만 (상대 56)
천병수 (공대 70 입)
최구진 (약대 54 입)
최석진 (사대 54)
최일단 (미대 55 입)
최태식 (의대 69 입)
최한호 (농대 58 입)
최형무 (법대 69 입)
한승원 (미대 60 입)
한영수 (의대 61 입)
한용진 (미대 55 입)
한용호 (법대 48 입)
홍선경 (의대 58 입)
황문하 (수의 76 입)

OH (107명중 17.8%)

김윤성 (의대 63)
김한교 (공대 64)
김현왕 (공대 64)
명인재 (의대 62 입)
서윤식 (의대 55 입)
손기용 (의대 57 입)
송용덕 (의대 63 입)
송용재 (의대 58 입)
이범세 (의대 56 입)
이용재 (공대 60 입)
이원호 (의대 53 입)
정길화 (의대 59 입)
채혜숙 (공대 57 입)
최인갑 (의대 58 입)
홍준표 (의대 58 입)

OK (4명중 2명)
김정숙 (생활과대 74 입)
이상강 (의대 72 입)

OR (59명중 10.2%)

김상만 (음대 46 입)
김상순 (상대 67 입)
김영자 (간호대 69 입)
성성모 (사대 67 입)
최근영 (사대 60 입)
한영준 (사대 60 입)

PA (206명중 14.6%)

강영배 (수의대 59 입)
김국간 (치대 64 입)
김영우 (공대 55 입)
김용국 (의대 58 입)
김재술 (약대 58 입)
김주진 (법대 55 입)
박영환 (약대 68 입)
민홍식 (수의대 60)
서중민 (공대 64 입)
변국환 (공대 75)
손재옥 (생과대 77 입)
송영두 (의대 56 입)
신선자 (의대 67 입)
심완철 (의대 58 입)
양운택 (치대 56 입)
오진석 (치대 56 입)
윤정나 (음대 57 입)
이규호 (공대 56 입)
이만택 (의대 52 입)
이봉재 (공대 95 입)
이성숙 (가정대 74)
이지춘 (미대 61 입)
장성환 (의대 55 입)
전무식 (수의대 61)

전방남 (상대 73 입)
전희곤 (문리 59 입)
제갈은 (상대 61 입)
정홍택 (의대 68 입)
조영일 (음대 60 입)
주기목 (수의대 68)

RI (15명중 1명)

오세자 (인문대 71 입)

TN (12명중 1명)

윤준식 (의대 48 입)

TX (239명중 10.5%)

박노환 (문리 48 입)
김기준 (공대 61 입)
김영옥 (의대 60 입)
김영창 (의대 60 입)
김희신 (공대 48 입)
김정훈 (공대 57 입)
김진만 (음대 90 입)
김현정 (공대 50 입)
명인성 (미대 60 입)
박민자 (미대 60 입)
박석규 (농대 73 입)
유길선 (농대 73 입)
유세만 & 박유미 입)
이규진 (약대 60 입)
이길영 (문리대 59 입)
정 Joung H ()
정철를 (문리 59 입)
조시호 (문리 57 입)
조진태 (상대 60 입)
진기주 (상대 60 입)

최성호 (의대 53 입)
최용천 (사대 57 입)
황의환 (사대 76 입)

UT (22명중 2명)

김인기 (문리 58 입)
박찬호 (자연과 81 입)
배유환 (공대 73 입)

VA (270명중 8.5%)

고무환 (법대 57 입)
박근영 (사대 51 입)
김세광 (공대 62 입)
남광순 (음대 64 입)
문성길 (의대 63 입)
박경훈 (상대 55 입)
박용걸 (약대 56 입)
박일영 (문리대 59 입)
박재일 (농대 69 입)
박형순 (의대 54 입)
서취열 (의대 55 입)
신용계 (문리대 74 입)
유종열 (약대 60 입)
윤개일 (음대 55 입)
이승희 (미대 60 입)
이연구 (공대 59 입)
이영목 (의대 45 입)
이형모 (의대 45 입)
정재훈 (농대 62 입)
최규식 (상대 64 입)
최동현 (문리대 50 입)
최완영 (상대 56 입)
최준호 (공대 60 입)
이내원 (사대 59 입)
이연구 (미대 60 입)
변만식 (사대 49)
김기봉 (음대 87 입)
이석형

WA (156명중 11.5%)

구본영 (공대 65 입)
김영일 (문리대 49)
김윤국 (상대 68 입)
박종수 (공대 74 입)
변종혜 (법대 58 입)
양용관 (수의대 62)
유성열 (공대 72 입)
이정희 (사대 58 입)
이대원 (사대 58 입)
이순모 (공대 63 입)
이종성 (음대 60 입)
황재규 (음대 55)
홍계인 (음대 55)
송준 (공대 55)
양용관 (수의대 62)
신창범 (법대 73)

WI (23명중 5명)

장홍 (문리대 61 입)
장세곤 (의대 57 입)
전장호 (공대 55) WI
김영화 (문리 65 입)

WV (12명중 1명)

정약준 (의 61)

ONT, CANADA

이승찬 (농대 55 입)

지역 미상

김희용 (약대 74 입)
곽영호 (수의 73 입)
이관 (공대 55 입)

2011 회계년 회비(회보 구독료 포함) 1년분 \$75 선납하신 분

AK

윤제중 (농대 55 입)

AZ

지영환 (의대 61 입)

CA

김석홍 (의대 61 입)

김은희 (의대 61 입)

김정민 (의대 61 입)

남장우 (사대 56)

노재민 (의대 61 입)

박민자 (의대 61 입)

박중수 (문리 60)

현원영 (의대 61 입)

서치원 (공대 69 입)

박종성 (법대 53 입)

조태목 (사대 60 입)

김익창 (의대 51 입)

강희창 (공대 57 입)

이성용 (음대 58 입)

정 황 (공대 64 입)

임춘수 (의대 57)

임진한 (치대 68)

박형철 (사대 72)

정인환 (법대 54 입)

부영무 (치대 72 입)

계영혜 (가정대 71)

최중환 (치대)

유제환 (상대 67)

오명주 (간호대 77)

CT

김제동 (인문대 70)

FL

오석일 (의대)

윤홍철 (의대 56)

GA

김용진 (문리 48 입)

IL

김제환

노영일 (의대 54)

신석균 (문리대 54)

이소희 (의대 61 입)

임현재 (의대 59 입)

정 호 (공대 62 입)

조철 (공대 49)

최의필 (의대 53 입)

최혜숙 (의대 53 입)

MD

박명영 (의대 66 입)

MI

유효명 25

남상용 (공대 52 입)

MN

김권식 (공대 61 입)

NE

김명자 (간호 55 입)

NJ

이분휘 (문리 54 입)

김한중 (의대 56 입)

한인섭 (상대 58 입)

박대호 (치대 66 입)

김봉희 (공대 69)

이분휘 (문리대 54)

NY

김승호 (공대 71)

양금자 (미대 69 입)

황문하 (수의 76 입)

노용면 (의대 49 입)

박수안 (의대 59 입)

이희정 (의대 55 입)

한승신 (의대 55 입)

OH

OR

최근영 (법대 63 입)

PA

김용국 (의대 58 입)

김주진 (법대 55 입)

이성숙 (가정대 74)

전희곤

TX

박민자 (사대 58)

조시호 (문리 59 입)

VA

김기봉 (음대 87 입)

이석형 210

WA

신창범 (법대 73)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성명:(한글)	작성일:	년	월	일
(영문)				
단과대:	대학원:	학과:	입학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회계년도	동창회비 (구독료)	관악 후원금				종신 이사비	모교발전기금 (백만불기금)	지부 분담금
2009. 7. 1.- 2010. 6. 30.	\$75	\$200	\$200+	\$500	\$1,000	\$3,000		
2010. 7. 1.- 2011. 6. 30.	\$75	\$200	\$200+	\$500	\$1,000	☐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Card Holder Name: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Card: Visa ☐ Master Card ☐
Send to: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Card No.: Security Code: Exp. Date:
	Signature: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컨설팅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l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8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우 광정옥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흥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방코 포플라 시민은행
김영덕(법대 58).....(323)731-1475
3360 W. Olympic Blvd. #1 Los Angeles
CA 90019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2),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문리대 72)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Ace Business Services, Inc.
조만연(상대 58) (818) 994-7365
14617 Victory Blvd., #2 Van Nuys CA 91411

한인월드뱅크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The Westar Group

리테일러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haron's Fashion

신정식(상대 64) (626) 449-1712
453 E. Orange Grove Blvd., Pasadena CA
91104 Gardena CA 9024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세계보석
김광철(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리테일러/리퀘스토아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 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e CA 90250

무역/수출입

리테일러/식품점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CKL (수출입)
김순길(문리대 61) (213)488-1750
110E. 9th St., #A404 Los Angeles CA 90079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영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차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8@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무역/전자제품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 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무역/안과용 기기및 약품
Youngin(USA) Inc.
이영수(상대 60) (626) 448-3039
11100 Valley Blvd. #125, El Monte CA 91731

변호사/법률사무소

김지영 변호사
김지영(사대 69) (213) 532-3600
3700 Wilshire Blvd., #61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중개업

럭키부동산 관리회사
김희재(사대 66) (213) 736-5872
3200 Wilshire Blvd., #1507 Los Angeles CA 90010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운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 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서비스/Pest Control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Valley Lyons Pet Hosp.
권대삼(수의대 73) (661) 254-6680
24882 Apple St Santa Clara CA 91321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74)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l.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종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8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윤(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회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종규 치과그룹

* 권종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장기열 치과

* 장기열(치대 55) (232) 930-1744
402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90033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91748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의료/내과/전문의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알내과

정수만(의대 66) ◦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의료/이비인후과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건(농대 66) ◦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 #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웅오(의대 57) ◦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 (909) 425-8624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의료/척추신경과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의료/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dino CA
92404

의료/방사선과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재생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중(상대 59) ◦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제조업/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 #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제조업/건강과 자연

Nature & Health, Inc.
송준선(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교회/사찰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a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종교/교회 지휘자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한의원/한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Life Acupuncture Clinic

강병삼(공대 52) ◦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업소특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샌 디에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 이춘희(의대 78) (858) 525-3222
4428 Convoa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 가주

상당/ 컨설팅

둘이하나 결혼 정보



5년전 설립,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실함과 많은 초혼재혼자
데이트 중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nue, Suite 200
Oakland CA 94609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수의사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의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한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D. 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석(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의사 /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익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

Drivetech,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Website: www.hanstravel.com

해보라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의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939-2811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8
Baltimore, MD 2121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8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테일러/주업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학원/온라인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강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영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강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rnm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재정설계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의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형(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8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의사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2009년 12월 Vol 188

OK

하트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503) 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보험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리테일/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 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의사/동물병원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록(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명남(의대 61) ◦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 (215) 887-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제조업

Industrial Electric Motors Co.
현재원(공대 60) ◦ (215) 747-

휴스턴

수의사/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 (281) 531-9095
1368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민성(공대 50) ◦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 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티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 263-8866
29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 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 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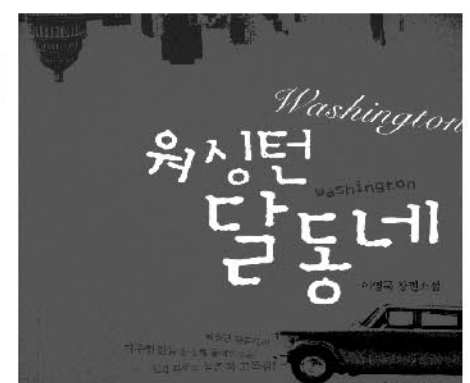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Tel: (425) 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워싱턴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워싱턴 달동네’ 판매 안내

"재미"있고 "박진감" 그러면서 "문화성"을 지
닌 소설로, 그래서 한국에서 호평 속에 팔리
고 있는이영목 동문 (공대 59학번)의 장편소
설

단가 : \$ 15.00 (우송료 포함)
구입신청: e-mail : YL22180@YAHOO.COM
FAX : 703-931-8884

지불처: 1363 NORTHWYCK CT.
McLEAN, VA 22102
PAYABLE TO : YUNG LEE

업소등록 변경에 따른 신청 및 정정 요구 절차

업소등록 지면 할애와 광고료 및 디자인 문의는 광고부
(전화 224-548-2148)에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송순영(문)

차기회장: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구경희(의)
관악 후원회 고문 이준행 (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태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중민(공) 한재은(의)
신웅남 (농)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김정주(문)
총무국장: 이승자(사)
재무국장: 박 숙(의)
특별간사: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위원

발행인: 송순영(문)
주 필: 이윤모(농)
편집위원: 고병철(법) 조민규(문) 조봉완(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편집장: 이기준

논설 위원

고병철(의) 김일훈(의)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의)
남채홍(NY) 백 순(DC) 오강남 (BC) 오기창(의) 육길원(의)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패(SF) 정홍택(PA)
한창섭(NY)

서울대 미주 동창회 지역 지부

남가주	회장	제영혜(가정 71입) 714-809-4481 yvonnelee52@msn.com	오하이오	회장	최민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l613@gmail.com
	차기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임승패(문리 66입) 510-381-1054 sk0425@hotmail.com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샌디에이고	회장	박우선(공대 57입) 858-603-6878 haljopark@cox.net	하를랜드	회장	김명자 (문리 62입) (402) 493-2284 jtkohr@msn.com
	차기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뉴욕	회장	신웅남(농대 70입) 718-463-3131 peters1027@aol.com	플로리다	회장	전일수(상대 50입) 305-606-1982 eugenechun@hotmail.com
	차기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워싱턴DC	회장	윤경의(공대 57입) 703-542-7212 keyoon96@yahoo.com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정상목(약대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시카고	회장	노영일(의대 62입) 708-226-0345 youngilro@comcast.net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510-655-3239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kiminc@aol.com		차기회장	정량수(의대 60입) 828-442-8711 drchung3@yahoo.com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옥(가정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로키마운틴스	회장	강창운(의대 72입) 720-344-2815 mydreamis@comcast.net
	차기회장	전방남(상대 73입) 215-360-4138 jeonbana@drexel.edu		차기회장	전남인(사대 입) 719-592-0037 jhonjeun@hotmail.com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애리조나	회장	고광선(공대 57입) 425-488-6326 ncyangkoh@gmail.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차기회장	오덕겸(의대 58입) jindori@cox.net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입)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이석호(문대 78입) 972-475-1184		차기회장	김진영(공대 72입) 503-686-038 jin.y.kim@intel.com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알래스카	회장	장근유(미대 58입) 907-748-0067
	차기회장	김경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ville@aol.com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이승찬(농대 55입) 647-246-2405 schanlee@rogers.com
	차기회장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email.com
미네소타	회장	남세현(공대 67입) 651-285-9715 ssnam@mmm.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오강남(문리 61입) 604-461-5178 soft103@hotmail.com
	차기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이현(공대 79입) 604-454-4424 jarneshyunlee@hotmail.com
워싱턴주	회장	김재훈(공대 72입) 425-681-4253 jkim1@ieee.org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신창범(법대 73입) 206-949-787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조윤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동문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2010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임원단 일동

사진 앞줄 좌측부터
조민규 편집위원, 이송자 총무국장 겸 편집위원,
송순영 회장, 이웅락 고문, 이윤모 주필
사진 뒷줄 좌측부터
정 호 편집위원, 박영규 감사, 박숙 재무국장, 구경희
부회장 겸 편집위원, 조대현 편집위원, 김청주 사무총장
사진 외 임원
조봉완 편집위원, 고병철 편집위원, 최순웅 특별 감사,
김재영 감사



일반 광고

1개월 기준(장기 계약 할인 가능) 광고 규격중 선택 ()

Color \$1,500						
B/W \$750	\$400	\$250	\$250	\$200	\$150	
전면 w240mm h330mm	1/2H w240mm h165mm	1/3H w240mm h110mm	1/3V w120mm h220mm	1/4H w240mm h82.5mm	1/6V w120mm h110mm	

• 지불방법(Check or Credit Card)

Amount: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Card: Visa ☐	Master Card ☐	Card Holder Name:	
Card No.:	Security Code:	Exp. Date:	
Signature:		Address:	

업소록 리스팅

1년 요금: 샘플은 업소록에

- 기본 1유닛(3 컬럼 라인)
싱글 박스 \$120 ☐
- 2유닛 (6 컬럼 라인)
더블 박스 \$200 ☐
- 3 유닛 (10 컬럼 라인)
\$300 ☐

광
고
주
를
모
으
심
니
다

샤프 여행사 광고

모교 발전기금 광고

선배님 함께
해 주세요